


## 한국인문사회질학회 2023년 상반기 학술대회

# 사회적 가치 증진과 ESG

- 일시 : 2023년 6월 9일 (금), 14:00~18:00
- 장소 : 고려대학교 국제관 317호,  zoom
- 주최 : 한국인문사회질학회



**한국인문사회질학회**

Korean Association on Humanities & Social Quality





한국융합인문학회와 한국사회적질학회가  
하나되어 개최하는 첫 번째 학술대회

## 한국인문사회질학회 2023 상반기 학술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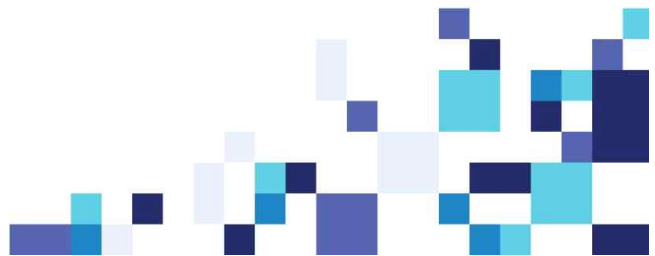
# 사회적 가치 증진과 ESG

총회 | 학술대회 | 연구윤리강화 워크숍

일시 : 2023. 6. 9. 14:00

장소 : 고려대 국제관 317호


Zoom : ID 856 7304 9756, PW 543258





# 한국인문사회질학회 2023년 상반기 학술대회

## [세부일정]

- ▶ 일 시 : 2023년 6월 9일 (금), 14:00~18:00
- ▶ 장 소 : 고려대학교 국제관 317호
- ▶ 온라인 :  zoom (ID 856 7304 9756, PW 543258)

### 제1부 | 통합학회 출범 총회 [14:00-14:30]

- 의장 : 회장 송시형 (통합공동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
- 사회 : 상임이사 박보영 (통합공동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

1. 성원보고\_ 상임이사 박보영
2. 통합학회 출범 총회 개회선언\_ 회장 송시형
3. 의장 인사말\_ 회장 송시형
4. 통합학회 출범 경과보고\_ 상임이사 박보영
5. 안건 심의 및 의결\_ 회장 송시형 / 상임이사 박보영
  - 제1호 안건 : 회칙(안) 추진
  - 제2호 안건 : 임원진 추진
  - 제3호 안건 : 주요 현안 보고 및 추진
6. 기타 안건 토의\_ 회장 송시형
7. 폐회선언\_ 회장 송시형

## 제2부 학술대회 | 사회적 가치 증진과 ESG [14:30-17:20]

- 좌장 : 송시형 (국제사이버대학교)

시간	구분	내용
14:30~14:40	개회선언 및 인사말	• 송시형 (한국인문사회질학회 회장)
14:40~14:50	휴 식	
14:50~15:20	주제발표 1	<b>한국 ESG의 사회적 가치와 과제</b> • 발표 : 이창언 (경주대학교) • 토론 : 강충호 (아주대학교)
15:20~15:30	휴 식	
15:30~16:00	주제발표 2	<b>위험사회와 ESG</b> • 발표 : 박범기 (한독교육복지연구원) • 토론 : 박지선 (우송대학교)
16:00~16:10	휴 식	
16:10~16:40	자유발표	<b>민주주의 퇴행의 의미와 유형</b> • 발표 : 조한상 (청주대학교) • 토론 : 박보영 (극동대학교)
16:40~16:50	휴 식	
16:50~17:20	종합토론 및 폐회선언	• 송시형 (한국인문사회질학회 회장)

## 제3부 |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17:30-18:00]

- 진행 : 김근면 (한국인문사회질학회 부회장 겸 연구윤리위원장)
1.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관련 자료집 소개
  2. 한국연구재단 KCI 논문유사도 검사 활용법 안내
  3. 한국연구재단 KCI 인용정보검색 및 <KCI 인용지수> 안내

## [ 목 차 ]

### 2023년 상반기 학술대회 프로그램 안내

---

#### 제1부 학술대회 | 사회적 가치 증진과 ESG

##### □ 주제발표 1

한국 ESG의 사회적 가치와 과제 ..... 7

▶ 발표 : 이창언 (경주대학교)

▶ 토론 : 강충호 (아주대학교)

##### □ 주제발표 2

위험사회와 ESG ..... 41

▶ 발표 : 박범기 (한독교육복지연구원)

▶ 토론 : 박지선 (우송대학교)

##### □ 자유발표

민주주의 퇴행의 의미와 유형 ..... 51

▶ 발표 : 조한상 (청주대학교)

▶ 토론 : 박보영 (극동대학교)

---

#### 제2부 | 연구윤리강화 워크숍

▶ 진행 : 김근면 (강릉원주대학교)

1. IRB(Institutional Reveiw Board) 교육 ..... 61

2. 한국연구재단 KCI 논문유사도 검사 활용법 안내 ..... 68

3. 한국연구재단 KCI 인용정보검색 및 <KCI 인용지수> 안내 ..... 70





제1부 학술대회

---

논문발표

## 사회적 가치 증진과 ESG

[주제발표 1]

한국 ESG의 사회적 가치와 과제

- 이창언 (경주대학교)

[주제발표 2]

위험사회와 ESG

- 박범기 (한독교육복지연구원)

[자유발표]

민주주의 퇴행의 의미와 유형

- 조한상 (청주대학교)



## 한국 ESG의 사회적 가치와 과제

이창언

(경주대학교 대학원 SDG·ESG경영학과 교수)

### 한국 ESG의 사회적 가치와 과제 : 지자체 ESG를 중심으로

**이창언**  
 경주대학교 대학원 SDG-ESG 경영학과 학과장  
 경주대학교 SDGs-ESG 연구센터 센터장

### 지속가능성의 위기와 SDGs-ESG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세계인들은 왜 SDGs-ESG를 주목하는가?**  
 현재 지구-국가-도시의 지속가능발전이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현재 지구촌의 수십억 명 인구가 빈곤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 국가 내 그리고 국가 간 불평등 또한 고조되고 있다. 기회, 빈부, 권력의 격차가 심각하며, 불평등은 핵심적인 도전과제로 남아 있다.

실업, 글로벌 보건에 대한 위협, 더욱 빈번하고 극심해진 자연재해, 분쟁의 급증, 폭력적 극단주의, 테러리즘, 천연자원의 고갈과 사막화, 가뭄, 토지 황폐화, 담수 부족, 생물 다양성 감소, 지구 온도와 해수면의 상승, 해양 산성화 및 기타 기후 위기로 인해 많은 공동체와 지구의 생물학적 지원 체계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유엔 2030 의제 중).

**WEF가 진단한 2022년의 10가지 위험 요소**  
 ('세계 위험 보고서(The Global Risk Report)')

세계경제포럼에 참여한 1천 명에 달하는 전문가들은 5가지 범주로 분류된 37가지 위험 요소를 비교해서 보다 위험도가 높은 요소를 골랐고,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 세계 위험 보고서다. 2022년 보고서는 특히 '극중 시급한 위험 요소'를 찾기 위해 단기, 장기 위험 요소를 각각 통합하게 했다.

순위	위험 요소
1순위	기후 변화 대응 실패
2순위	극심한 식량 가격 폭락
3순위	생물다양성 감소
4순위	사회적 불신
5순위	경제 위기
6순위	강행법 위반
7순위	인간에 의한 환경 파괴
8순위	전반 자원 부족
9순위	분쟁 위기
10순위	우익인 관계 붕괴

1. 2023년 10년간 세계가 마주하게 될 가장 위협적인 문제 10가지는?

위험 요소	위험도
기후 변화 대응 실패	36.1%
생물다양성 감소	27.2%
극심한 식량 가격 폭락	25.7%
사회적 불신	25.6%
경제 위기	25.1%
우익인 관계 붕괴	20.1%
인간에 의한 환경 파괴	19.1%
전반 자원 부족	18.9%
분쟁 위기	18.8%
강행법 위반	18.7%
기후 변화 대응 실패	18.2%

2. 단기(1년~5년) 내로 세계에 가장 위협적인 위험 요소 10가지는?

위험 요소	위험도
기후 변화 대응 실패	42.1%
경제 위기	30.4%
생물다양성 감소	27.2%
극심한 식량 가격 폭락	25.7%
사회적 불신	25.6%
경제 위기	25.1%
우익인 관계 붕괴	20.1%
인간에 의한 환경 파괴	19.1%
전반 자원 부족	18.9%
분쟁 위기	18.8%
강행법 위반	18.7%
기후 변화 대응 실패	18.2%

2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 SDGs 확산의 배경

- 유엔의 의지
- 정부, 지방정부의 혁신전략
- ESG 경영의 확산
- 대학평가의 변화
- 탄소중립 2050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 제정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 2030 의제, SDGs 구조

구분	내용
전문	•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협력의 5P 의제(People Planet, Prosperity, Peace, Partnership)
선언	• 서문
	• 우리의 비전
	• 공통의 원칙과 약속
	• 오늘날의 세계
	• 새로운 의제
	• 이행수단
	• 후속조치 및 검토
• 우리의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행동 요구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세부목표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
이행수단 및 글로벌 파트너십	
	60-71
후속조치 및 검토	
	• 국가 차원
	• 지역 차원
	• 글로벌 차원
	72-77
	78-79
	80-81
	82-91

UN 70차 총회 공식문서 「우리 세계의 전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는 서문(Preamble), 선언(Declaration) 59 단락,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행수단(Means of Implementation), 후속 조치 및 평가(Follow up and Review)로 총 91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 SDGs 3대 정책 키워드

첫째, 지구 공동의 대응과 로컬 차원의 실천의 양립을 목표로 하는 사고와 행동을 의미하는 지구 규모 <Global scale>이다.

둘째, 미래상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전략을 끌어내는 <back casting>이다. 이는 지속가능한 미래의 모습에서 역산하여 현재의 대책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순위 탄력적)

셋째, SDGs 전체의 테마이기도 한 아무도 남겨두지 않는다 <No one will be left behind >이다.



5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 SDGs 중요 이념

첫째, 누구도 소외하지 않는다(Leave No One Behind, LNOB)라는 포용(包容)이다.

둘째, 정부, 기업, NGO 등 주요 이해당사자들의 협치(協治)라고 할 수 있다.

SDGs적 접근법의 특징은 목표 기반의 거버넌스(governance through goals)라고 할 수 있는 데, 이는 장기간 국제사회 협동의 원칙이었던 '규칙에 따른 통치'를 넘어서는 시도로서 '자율분산·협조형 협동'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6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 SDGs 세계관

‘지구의 한계(planetary boundaries)’를 인정하는 ‘지구 먼저 세계관’과, ‘누구도 소외하지 않는다(no one left behind)’라는 인권과 참여 원리에 근거한 ‘사회 포용적인 세계관’으로 칭함.

그리고 바람직한, 지금보다는 다른 미래 사회를 지향하는 세계의 전환(transforming our world)을 추구 하는 ‘전환 세계관’으로 칭함.

SDGs는 이런 세계관과 함께 ‘공유된 책임’을 강조하며 만국, 만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성과 형평성을 요구하는 ‘실천 세계관’을 갖고 있음.

(佐藤真久, 2020; 이창언, 2020e: 253)

7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 SDGs와 ESG의 관계

ESG와 SDGs는 경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움직임이라는 점에서는 그 기원과 시각을 공유한다.

현재 많은 경우 ESG 논의는 지속가능성 개념을 기업이나 투자자 등 민간부문의 이해관계자 집단에 초점을 둔다.

반면 SDGs는 기업부문의 활동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 더 나아가 범세계적인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논의를 지향한다.

한편 SDGs는 기업에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참여를 요청한다. 특히 '2030 Agenda'의 제67조는 사회의 관점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활동을 요청하고 있다.

이 조항은 SDGs와 ESG 활동이 배타적이지 않으며, SDGs 달성을 위한 기업과 자본시장에서의 노력이 상당부분 ESG에 반영된다는 것을 보여준다(KIEP, 글로벌 ESG 동향 및 국가의 전략적 역할).



ESG의 관련 키워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목표인 반면, ESG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 SDG: 정부와 국제기구가 주도하는 '목표'  
 - ESG: 공문선업과 기업을 중심으로 목표를 실현하는 '행동방안'

8

###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 SDGs와 ESG의 관계

####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 인권, 노동, 환경과 반부패에 관한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은 세계적 인 합의 과정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선언과 협약에서 유래하였다.
  - 세계인권선언 (1948)
  - 노동에서의 권리와 기본 원칙에 관한 ILO 선언 (1998)
  -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1992)
  -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 (2003)

#### •Human Rights

- 원칙 1.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하고,
- 원칙 2.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 •Labour

- 원칙 3.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 원칙 4.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 원칙 5.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 원칙 6.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 •Environment

- 원칙 7.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 원칙 8.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 원칙 9.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 •Anti-corruption

- 원칙 10.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THE TEN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10 Principles LINKAGES 17 SDG**

Source: UNGC

###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 ISO 26000, SDGs, ESG의 관계

사회책임경영이행지침 (ISO 26000) 7대 주제

- 환경: 인권의 보호, 안전한 근로, 생활환경의 유지
- 인권: 보편적 권리의 제공, 노동권 보장과 근로조건 향상
- 소비자 이슈: 사회적 약자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과 협력
- 노동권별: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 공정운영 관행: 지역경제 공헌, 기업의 자발적 사회적책임 이행
- 지역사회참여발전: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 거버넌스: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동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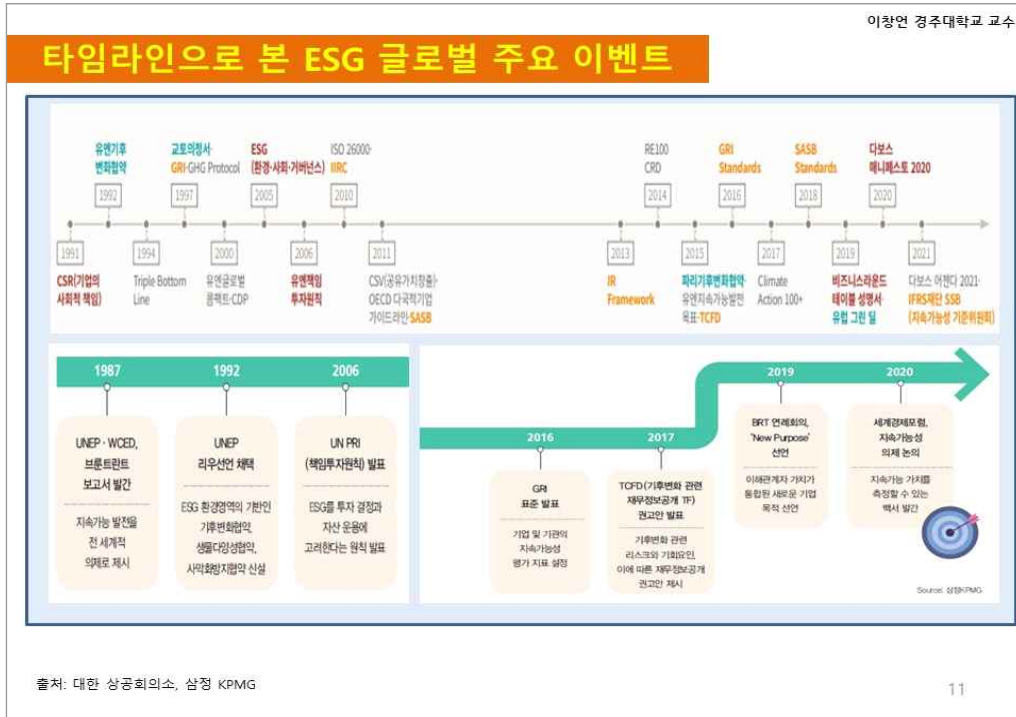
UN SDGs (17개 핵심 주제)

- 빈곤, 기아, 복지, 교육, 양성평등, 물, 에너지, 경제/노동, 경제 불평등 완화, 주거, 지속가능 소비, 기후변화, 바다, 육상 생태계, 사법, 파트너십

ESG 이슈 예시

- E (환경)**: 수질 오염 방지, 육상 생태계 보호, 에너지 & 기후변화
- S (사회)**: 경제위기/취약계층 지원, 안전/보건/복지, 문화관광(고객 유지), 노동/인권
- G (거버넌스)**: 민주적 의사결정, 주권 참여, 파트너십

핵심주제	이슈	비고
①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염예방</li> <li>•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li> <li>•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li> <li>• 자연보호</li> <li>• 생물다양성 및 자연 서식지 복원</li> </ul>	환경 (E)
②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실사</li> <li>• 인권 리스크 상황</li> <li>• 알류/공모작</li> <li>• 고충 처리</li> <li>• 차별 및 위약집단</li> <li>•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li> <li>• 경제/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li> <li>• 근용제의 근원학적 및 관리</li> </ul>	사회 (S)
③ 노동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충 및 고충관리</li> <li>• 근로조건 및 사회적 보호</li> <li>• 사회적 대화</li> <li>• 계약에서의 보건 및 안전</li> <li>• 작업장에서의 안전 개발 및 훈련</li> </ul>	
④ 공정운영 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부패</li> <li>• 책임있는 정치체 참여</li> <li>• 공정경영</li> <li>• 가치사슬에서의 사회적책임 촉진</li> <li>• 재산권 존중</li> </ul>	사회 (S)
⑤ 소비자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 마케팅</li> <li>• 유통권 정보제공</li> <li>• 공정거래 관행</li> <li>• 소비자의 보건 및 안전 보호</li> <li>• 지속가능 소비</li> <li>• 소비자 서비스</li> <li>• 자원과 불만 및 분쟁 해결</li> <li>• 소비자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li> <li>•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li> <li>• 고충 및 인식</li> </ul>	
⑥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참여</li> <li>• 교육 및 문화</li> <li>• 고용 창출 및 가능 개발</li> <li>• 기술 개발 및 기술집진성</li> <li>• 부 및 소득 창출</li> <li>• 보건</li> <li>• 사회적 투자</li> </ul>	조직 거버넌스 (G)
⑦ 조직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사결정 프로세스 및 구조</li> </ul>	



ESG를 따라다니는 꼬리말들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

ESG의 이해

## ESG를 따라다니는 꼬리말들

- ESG : 지속가능경영을 잘하는 기업들에 대한 금융과 투자의 평가프레임
- ESG 경영 : 기업이 경제적 가치 외에 환경· 사회적 가치를 적극 고려· 창출함으로써 기업의 명성과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통칭
- ESG 투자 :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비재무적 요소를 적극 고려하는 흐름을 통칭하는 개념
- ESG 이니셔티브 : 이니셔티브(Initiative)는 '어떤 주제에 대해 논의를 이끌어 가는 구조 또는 권리'  
 ESG 관련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논의를 하고 그 논의의 실천방안을 만들어내는 협의체
- ESG 생태계 : ESG 이해관계자, 그룹 혹은 이니셔티브 등의 조합
  1. ESG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개념(principle)을 개발하고 제시하는 기관
  2. 기업이 공개해야 하는 비재무적 지표들에 대한 가이드라인(표준, 측정방법, 공개범위 등)을 제시하는 기관
  3. ESG 관련 데이터, 자문, 보증 등의 업무를 하는 기관
  4. 기업체 연합, 투자자 연합 등 ESG 관련 이슈에 대해 공동으로 논의하는 이니셔티브

01



ESG 관련 개념 정의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구분	내용	사회적 책임(CSR)	사회적 가치(SV)	ESG
지속가능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87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에서 제출한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를 사용</li> <li>미래세대의 요구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의미함 [출처: ISO 26000]</li> <li>지속가능성이란 현재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래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함.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함 [출처: 지속가능발전]</li> </ul>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활동을 강조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실천적 가치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에 관한 비재무적 요소
지속가능경영 (Sustainability Manag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영을 의미함 [출처: 산업발전법 제 2조 제 1항] 정부는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적 지원을 수. 시행해야 한다]</li> </ul>	기업의 책임이 주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 활동에 관계된 이해관계자까지 영향을 인식하고 이에 부합하는 자 발적인 기업의 부가 활동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이 인문적으로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비재무적 요소를 관리하는 기업의 장기 투자 리스크 관리 전략
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유의 경계가 분리된 법인도입과 함께 등장. 경영자의 소유자(주주)에 대한 책임에서 확장된 개념임.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책무의 대상으로 기업을 바라보는 규범적 성격이 강함</li> <li>일반적으로 기업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주는 직·간접적 이해관계자들에 대하여 발생 가능한 제반 이슈들에 대한 법적, 경제적, 윤리적 책임을 감당할 뿐 아니라,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기회를 포착하여 중장기적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일련의 '이해관계자 기반 경영활동'을 의미 [출처: 중소기업 24 (www.smes.go.kr) CSR 정의]</li> </ul>	해외: CSR의 개념이 다문화 차원에서 논외되나, 현실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이 다수 국내: CSR을 기업의 고유 목적사업과 별도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인식	해외: 공공 및 사회서비스분야 원팀을 형성, 공공 분야에 발달 국내: 공공부문 중심으로 재무성과와 비재무성과를 통합하여 관리	해외: 미국 버티콘 행정부와 유럽연합(EU)는 기업의 ESG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도를 국내: K-ESG에 도입,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사회적 가치 (Social Val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 가치란 사회적경제적 환경적·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의미 [출처: 사회적가치법안]</li> </ul>	기업의 이해관계자	투자자, 일반 국민	투자자
사회책임투자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책임투자는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과 자산 운용에 있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기업지배구조(Governance) 즉 ESG 요소를 감안하는 투자 [출처: 글로벌 지속가능 투자연감(GSIA), 2015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li> </ul>	상위 1000개 기업의 수익률과 ESG 관련 투자 규모	사회적 가치의 추중에 관한 논의 활발하게 제도 반영되고 있음	기업의 비재무적 리스크(financial performance) 즉 재무적 성과나 리스크에 영향을 미침. 지속가능경영 전략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SG라는 용어는 2006년 UN에서 제정한 '사회책임투자원칙(PRI)'에 ESG라는 용어가 반영되면서 확산되어 시작됨</li> <li>자본시장 투자자 관점에서 주요 투자 의사결정요인이자,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요소(환경, 사회, 지배구조)임 [출처: 관계부처합동 'ESG인프라 확충방안']</li> </ul>	ESG는 기업의 생존 및 성장과 직결되는 핵심 가치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 ESG 경영의 개념

## ESG가 대체 뭐지?

**E**  
(Environmental)

**친환경**

- 탄소 전환
- 기후변화
- 수자원 관리

**S**  
(Social)

**사회적 책임**

- 교육
- 보건의 안전
- 노동 소득

**G**  
(Governance)

**지배구조 개선**

- 제도
- 정책 신뢰성/효과성
- 예산 관리

ESG란,  
기업 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방식을 적용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철학을 담은 개념이에요!

ESG가 뭐죠??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찾아야 할 3가지 핵심 요소**

전 세계적으로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해서 만든 용어입니다.

ESG는 기업의 생존 및 성장과 직결되는 핵심 가치

###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 ESG 관련 개념 정의

#### ESG 개념의 다양한 사용

규범적 관점 (Normative perspecti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의 목표와 가치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을 추구하고, 그에 대한 의사결정 혹은 행동을 실시하는 기업인의 의무 (Bowen, 1953)</li> </ul>	기업의 준수 의무
통합적 관점 (Integrated perspecti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시험에 사회가 조직에 대해 가지는 경제적, 법적, 윤리적, 자율적 기대를 포괄함 (Carroll, 1979)</li> </ul>	이해관계자 기대 부합
도구적 관점 (Instrumental perspecti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투자 형태로 볼 수 있으며, 경영진은 기업에 적절한 ESG 투자 수준을 결정해야함 (McWilliams and Siegel, 2001)</li> </ul>	투자의사결정 변영
정치적 관점 (Political perspecti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당국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거나 의지가 없는 경우, 기업이 공공재 공급자로서 책임있는 비즈니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Scherer et al., 2016)</li> </ul>	정치적 이해관계

#### ESG 행정 개념 정의

지자체가 정책 결정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경제발전, 환경영향, 사회적 가치 등을 고려하는 조직 운영방식을 의미

Environment  
환경

Social  
사회

Governance  
지배구조

15

###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 ESG 경영의 특징

#### 2019년 BRT\* 선언: 새로운 기업의 목적

**Business Roundtable**

- 1. 우리의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한다. (Delivering value to our CUSTOMERS)
- 2. 우리의 직원에게 투자한다. (Investing in our EMPLOYEES)
- 3. 공평하고 정직하게 공급자에게 대한다. (Dealing fairly and ethically with our SUPPLIERS)
- 4.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를 지원한다. (Supporting the COMMUNITIES in which we work)
- 5. 주주를 위한 장기적 가치를 창출한다. (Generating long-term value for SHAREHOLDERS)

BRT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 CEO 및 200여 명으로 구성된 협의체

ESG 경영은 '윤리'와 '책임' 그리고 '가치'를 넘어서 이제 '통합'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수행하는 ESG 경영의 전략적 실천을 의미한다. 통합의 주요 요소는 신사업 기회(Opportunity), 리스크 관리(Risk), 파트너십 전략(Business Partnership)이 핵심이다.

**핵심 요소**

- 1980- 윤리 (Ethics): Pyramid Model (1979) - 1. 윤리, 2. 사회적 책임, 3. 법적 책임, 4. 경제적 책임
- 2000- 책임 (Responsibility): Triple Bottom Line - 1. 경제적 책임, 2. 사회적 책임, 3. 환경적 책임
- 2010- 가치 (Value): Double Bottom Line - 1. 경제적 가치, 2. 사회적 가치
- 2020- 통합 (Integration): Integrated ESG - 신사업 기회, 리스크 관리, 파트너십

**패러다임 요소**

- 기업 이미지 제고, 마케팅 활용, 전략적 사회책임경영
- 환경, 사회, 거버넌스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주요 이해 관계자**

- 자신 및 기부
- 준법경영
- 윤리경영
- 고객, 소비자, 협력사
- NGO, NPO, 대학, 정부, 금융기관, 글로벌 기업 등
- 규범당국(정부), 임직원(NGO), 협력회사 1차, 협력회사 2차
- 주주, 투자자

**주요 이념**

- 주주중심주의 접근법
- 이해관계자 접근법
- 통합적 접근법

출처: 딜로이트 분석

16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 ESG가 기업에게 중요한 이유

**ESG가 기업에게 중요한 이유**  
기업 경영과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ESG 요구

**1 ESG 규제 강화**

- 기업의 ESG 정보공시 의무 강화
- 2050년 탄소배출 넷제로(Net-Zero) 달성을 위한 탄소감축 규제 강화 및 기업의 준수 노력

**2 투자자의 ESG 요구 증대**

-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도모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의 책임투자 및 ESG 투자 전략 활용 확대

**3 기업평가에 ESG 반영**

- 글로벌 신용평가사, ESG 요소를 신용평가에 적극 반영

**4 고객의 ESG 요구 증대**

- 공급망 관리와 협력업체 선정의 주요 요소로 부각되는 ESG
- MZ세대 중심의 고객 ESG 요구 증대

출처: 삼성KPNG 경제연구원(2021). "ESG의 부상,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Samjong INSIGHT』, Vol. 74-2021

17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 ESG가 해외 평가 이니셔티브

ESG와 관련된 평가, 공시, 기후변화, 거버넌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이니셔티브가 수립되었는데 투자 및 금융을 위한 프레임워크

평가기관	평가지표와 평가방법						
<b>MSCI</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SCI ESG 평가는 회사의 리스크 및 기회를 관리한 과거 기록과 전략 개발까지도 고려하여 분석한다. 과거 3년 내 사회적 논란이 발생한 경우 각 이슈에 대한 전반적 리스크 관리 점수의 감점 요인으로 적용한다</li> <li>· MSCI ESG 평가지표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3대 주축(Pillars), 10개 주제(Themes), 35개 핵심 이슈(Key Issues)로 구성된다.</li> <li>· 이들 핵심 이슈 중 글로벌산업분류표준(GICS)의 세분류산업 단계(에서 산업별로 주요 핵심 이슈가 선정되고 각 핵심 이슈의 전반적 평가에 기여를 결정짓는 가중치가 정해진다</li> </ul>						
<b>FTSE</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SG Data Model을 사용하여 산출하는 ESG 등급은 기업의 ESG 노출도와 성과를 복합적으로 측정하는 객관적 지표로 볼 수 있다. ESG 등급을 산정하는 목적은 기업의 ESG 관행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는 것이며, 이러한 목적에서 책임투자 지수들을 구성할 때 중점 선정에 활용된다</li> </ul>						
<b>Russell</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SG 평가체계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3개 영역(Pillar) 아래 14개 테마(Theme), 300여개 지표(Indicator)가 존재하는 계층구조이다. 한 테마당 10~35개의 지표가 하위항목으로 존재하며, 평가 대상 기업마다 평균 125개의 지표를 적용받는다</li> </ul>						
<b>S&amp;P Global</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 분야에서는 기후변화 위기, 천연자원, 환경오염 및 폐기물, 재난재해 위기 등을 고려함.</li> <li>· 사회 분야에서는 건강과 안전, 사회적 자본, 인적 자원 등을 고려함. (건강과 안전)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규제나 지원 등을 포함한다.</li> <li>· 거버넌스 분야는 거버넌스의 구조, 위기관리, 문화, 투명성과 공개성 등을 고려한다.</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 <tr style="background-color: #3498db; color: white;"> <th style="width: 33%;">환경 30%</th> <th style="width: 33%;">사회 30%</th> <th style="width: 33%;">거버넌스 40%</th>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실가스 배출</li> <li>· 물 이용</li> <li>· 쓰레기 및 오염</li> <li>· 토지 이용</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력 및 다양성</li> <li>· 안전관리</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객 참여</li> <li>· 커뮤니티</li> <li>· 지배구조 및 감독</li> <li>· 규정 및 기업 가치</li> <li>· 투명성 및 보고</li> <li>· 재무 및 운영 리스크</li> </ul> </td> </tr> </table>	환경 30%	사회 30%	거버넌스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실가스 배출</li> <li>· 물 이용</li> <li>· 쓰레기 및 오염</li> <li>· 토지 이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력 및 다양성</li> <li>· 안전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객 참여</li> <li>· 커뮤니티</li> <li>· 지배구조 및 감독</li> <li>· 규정 및 기업 가치</li> <li>· 투명성 및 보고</li> <li>· 재무 및 운영 리스크</li> </ul>
환경 30%	사회 30%	거버넌스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실가스 배출</li> <li>· 물 이용</li> <li>· 쓰레기 및 오염</li> <li>· 토지 이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력 및 다양성</li> <li>· 안전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객 참여</li> <li>· 커뮤니티</li> <li>· 지배구조 및 감독</li> <li>· 규정 및 기업 가치</li> <li>· 투명성 및 보고</li> <li>· 재무 및 운영 리스크</li> </ul>					

18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 한국 정부 ESG 동향 : 법제화

책임투자(성과 모니터링), 기후변화(Net Zero 가속화), 공급망(ESG 리스크), 지배구조(단계별 선진화), 정보공시(Timeline 단축) 분야의 법제화가 활발한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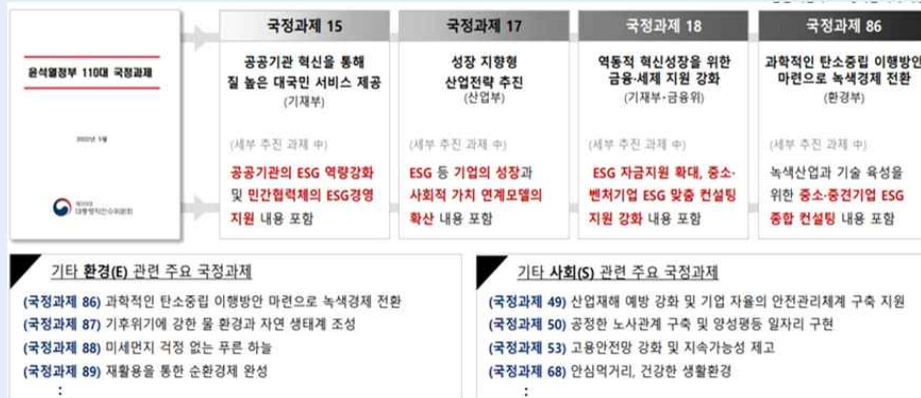
	법제화 추진 방향	주요 법/규제/정책
<b>책임투자</b>	책임투자 활성화 기반 구축 → 책임투자 성과 모니터링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U Commission, 친환경 활동 분류체계(EU Taxonomy) 체계 구축 착수 (20.12)</li> <li>한국 환경부, 녹색채권 발행 시 준수해야 할 절차, 사후보고 등을 규정 (20.12)</li> <li>한국 금융위, 의결권 자문사 활동 정보 공시 의무화 방안 발표 (21.01)</li> </ul>
<b>기후변화</b>	탄소 감축 공감대 형성(안정화), 타 분야 대비 Net Zero 추진 가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 산업부, RE100 이행 지원방안 및 녹색요금제 도입 발표 (20.09)</li> <li>EU Council, 2022년 시행 목표로 탄소국경조정세 도입 결의 (21.03)</li> <li>한국 국회, 화석연료로 생산한 물품당 탄소세 부과 법안 발의 (21.03)</li> </ul>
<b>공급망</b>	협력사 동반성장 & 상생협력 → 협력사 ESG 리스크 관리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 동반위(상생협력촉진법), 협력사 ESG 평가지원 사업 헌칭 (20.06)</li> <li>한국 법무부, 인권영향평가 포함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입법절차 본격화 (20.11)</li> <li>EU Council, 기업의 공급망 ESG 실사 의무화 입법 권고(안) 채택 (21.03)</li> </ul>
<b>지배구조</b>	경영권 직접 침해가 낮은 Option으로 단계별 지배구조 선진화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여성 이사 최소 1명 선임 (20.01)</li> <li>한국, 상법 개정 - 이사 선임 외 별도 감사 선임절차 필요 (20.12)</li> <li>한국, 상법 개정 - 모기업 지분 0.5% 소유 주주 → 자회사 이사 소용 가능 (20.12)</li> </ul>
<b>ESG 정보공시</b>	ESG 정보공시 규제 수준은 강화, 규제 Timeline 앞당겨질 가능성 높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 금융위 &amp; 거래소, ESG 공시 개선(안) 및 공시 가이드라인 발표 (21.01)</li> <li>EU Council, 지속가능금융 활동 및 성과 정보 공시 규제 시행 (21.03)</li> <li>한국 국민연금, 투자 대상 ESG 정보공시 제도 방안 발표 예정 (22. 中)</li> </ul>

19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 한국 정부 ESG 동향 : 현 정부의 국정과제와 ESG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서는 ESG가 직접적으로 언급되며 기업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한 과제들이 제시되고 있음 → 1) ESG 금융 기반 조성, 2) 공공/민간(중·소 중견 포함) 기업 ESG 경영 지원, 3) 저탄소 경제 성장을 통한 경·제산업 전반의 ESG 확산 목적



20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 국내 ESG 주요 정책 방안과 주요 내용 : K- ESG 가이드라인

K-ESG 가이드라인 구성과 주요항목			
구분	주요 항목		
정보공시(5개 문항)	ESG 정보공시 방식 ESG 핵심 이슈 및 KPI	ESG 정보공시 주기 ESG 정보공시 검증	ESG 정보공시 범위 원부재 사용량
환경 (17개 문항)	환경경영 목표 수립 재생 원부재비 비율	환경경영 추진체계 온실가스 배출량(Scope1+Scope2)	온실가스 배출량(Scope3)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용수 사용량	에너지 사용량 재사용 용수 비율	폐기물 배출량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폐기물 재활용 비율 환경 법/규제 위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친환경 인증 제품 및 서비스	
사회 (22개 문항)	목표 수립 및 공시 자발적 이직률	신규 채용 교육훈련비	정규직 비율 복리후생비
	결사의 자유 보장 장애인 고용률	여성 구성원 비율 안전보건 추진체계	여성 급여 비율(평균급여 대비) 산업재해율
	인권정책 수립 협력사 ESG 지원	인권 리스크 평가 협력사 ESG 협약사항	협력사 ESG 경영 전략적 사회공헌
지배구조 (17개 문항)	구성원 봉사 참여 사회 법/규제 위반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이사회 내 ESG 인건 상징 이사회 상별 다양성	사회이사 비율 사회이사 전문성	대표이사와의 의장 분리 전체 이사 출석률
	사내이사 출석률 주주총회 소집 공고	이사회 선하 위원회 주주총회 집중일 이회 개최	이사회 인건 처리 집중/전차면 투표제
	배당정책 및 이행 감사기구 전문성(감사기구 내 회계/재무 전문기)	윤리규범 위반사항 공시	내부 감사부서 설치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4개 영역, 총 61개 진단항목			

- 공시 의무 등 ESG 규율 강화, 기업 평가와 투자기준, 공급망 실사 등에 있어 기업의 ESG 경영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으나 국내의 600여 개 이상의 평가지표가 존재하고 평가 정보도 공개되지 않아 기업들은 ESG 대응에 어려움 호소함.
- 국내외 주요 13개 평가기관의 3,000여 개 이상의 지표와 측정항목을 분석하고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61개 ESG 이행·평가의 핵심·공통사항을 제시함.
- ESG 경영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초기 진입단계에 중소기업이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문항을 함께 제시하고 향후 기업 규모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할 계획임(2022~23년).

21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 국내 ESG 주요 정책 방안과 주요 내용

현 정부정책은 ESG 정착단계로 국내 공시제도 정비, 탄소 규제보다 인센티브 정책

구분	2021			2022				
	ESG 인프라 확충 방안	K-ESG 정책 방향	K-ESG 가이드라인	K'엑스노미(한국형 녹색산업 분류체계)	K-ESG 가이드라인 확대	평가기관 가이드라인	소셜 택스노미	ESG인프라 고도화 방안
발표 시기	2021.8.26	2021.10	2021.12.2	2021.12.30	2022	2022	2022	2022
내용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ESG활성화방안	산업지원차원의 ESG 활성화방안	ESG 표준 지표	친환경 활동의 기준	기업규모별 산업별 가이드라인	K-ESG 가이드라인의 연장선	S활동의 기준	국내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속가능 경제구축



22

## 국내 지자체 ESG 조례제정 현황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업의 ESG 경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지자체 구분	조례명	공포일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ESG 경영 지원 조례	2021.07.23
충청북도	충청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	2021.12.31
구미시	구미시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	2022.12.30
양평군	양평군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	2022.03.03
부천시	부천시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2022.12.26
충청남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2021.12.30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ESG 경영 지원 조례	2022.12.29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2.12.08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2022.12.30
경기도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2022.07.19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메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2.11.04
전라북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2022.11.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메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3.01.10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 추진 배경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STEP 1.** 기업 투자기관의 환경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 경영 투자가 민간중심으로 확산

**STEP 2.** 코로나 19,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 증대 → ESG 제도화 움직임 빠르게 확산

**급변하는 글로벌 ESG 환경에 대비·ESG 인프라 확충방안을 구체화**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 ESG 국제 현황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01 정부·국제기구	02 ESG 투자	03 ESG 경영	04 ESG 평가·컨설팅 시장
기후위기·양극화로 ESG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주요 국가 및 국제 기구를 중심으로 제도화 추진 중	코로나 19 이후로 ESG 투지에 대한 수요 급증, 주요 금융·투자기관을 중심으로 ESG 투자 기반 마련 중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ESG 공시 강화, 국제 이니셔티브 기업 등을 통해 ESG 경영 추진 중	기업 ESG 리스크 평가 및 컨설팅 서비스 시장 형성·성장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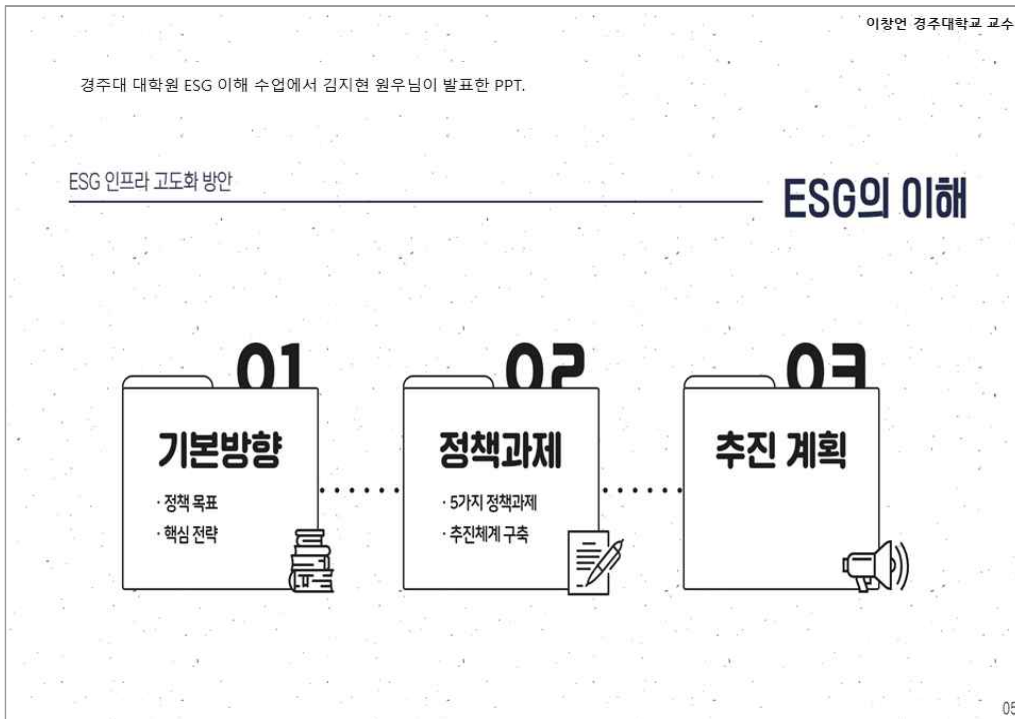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 ESG 국내 현황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01 ESG 공시	02 ESG 투자	03 ESG 경영	04 ESG 평가·컨설팅 시장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및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증	국민연금의 ESG 투자 확대 선언('19.11월) 이후, 주요 투자기관들의 ESG 투자 급증	대기업 중심으로 ESG 경영 확산 중	ESG 평가와 컨설팅 시장이 국내에서 활발하게 조성

04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정책추진 기본 방향**

ESG의 이해

**정책 목표**

민간 중심 ESG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우리기업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경제 구축

**핵심 전략**

인프라 구축 가속화로 ESG 생태계 육성지원

**정책 과제**

- 1 ESG 공시제도 정비  
- 국내 ESG 공시체계 정비      ESG 공시·공개제도간 연계강화
- 2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강화  
-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지원  
- 공급망 실사 대응 강화 등 수출·협력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강화
- 3 ESG 투자 활성화  
- ESG 재권 발행·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 및 ESG 평가지원 강화
- 4 ESG 정보·인력 지원체계 구축  
- ESG 정보 제공·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  
- ESG 전문인력 양성
- 5 공공부문 ESG 선도  
- 공공기관 ESG 경영 촉진      연금 ESG 투자 확대

**추진 체계**

민간 합동 ESG 협의회(가칭)  
(구성) 기재부차관 주재, 관계부처 차관 + 민간전문가

**【 ESG 생태계 】**

06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ESG 인프라 주요 정책과제**

ESG의 이해

### ESG 공시제도 정비

**글로벌공시표준화 등에 대해 ESG공시체계 정비**

(국제)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등 ESG 공시의 국제표준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표준 마련에 기여

(국내) 국내기업 ESG 경영의 투명성·비교가능성 등 제고를 위해 국내 ESG 공시제도 정비방안 마련 추진('23년)

글로벌 기준·국내 실정 등 고려해  
국내 ESG 공시제도를 정비

**공시제도와 각부처 공개제도간 연계강화**

ESG 공시제도와 각부처 공개제도간 내용이 유사 중복항목에 대해 명칭일원화 등 조정하여 기업 공시부담 완화('23년)

중장기적으로 ISSB 국제표준 등에 따른 ESG 공시관련 법령 개정 등에 맞춰 의무이행간주 점진적 도입

기업의 ESG 공시 부담 완화

07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ESG 인프라 주요 정책과제

ESG의 이해

### 중소·중견기업 ESG 경영지원 강화

####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 전환 지원

(ESG 확산) K-ESG 가이드라인('21.12월)을 규모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구체화

(교육·컨설팅)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ESG 교육·컨설팅 확대

(인센티브제공) 중소기업 ESG 경영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

**중소·중견기업의 자율적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

#### 수출·협력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강화

대기업의 협력사(중소기업)에 대한 ESG 경영수준진단, 컨설팅 지원 등에 대한 세제지원 제공('22년~)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간 컨설팅 등 실질적 협력 유도를 위해 협력네트워크 포럼('22.2월 출범)을 ESG 산업네트워크로 확대·개편('22.12월)

수출 중소기업이 참고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ESG 수출 가이드북' 발간 등 추진('22.12월)

**공급망 실사 대비 맞춤형 지원**

08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ESG 인프라 주요 정책과제

ESG의 이해

### ESG 투자 활성화

#### ESG 채권 발행·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원칙과 기준 제시 및 투자 유도 등을 위해 '사회적분류체계(Social Taxonomy) 연구('23년~)

민간의 사회적채권 발행 촉진을 위해 ICMA(국제자본시장협회) 등의 사례를 통해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 마련('23년)

환경 친화적이고 사회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속가능채권 가이드라인' 마련('23년)


투자활성화를 위해 파리기후협약 지수 개발('23년) 등 ESG 지수 다양화 추진

#### ESG 평가기관 가이드언스 마련 및 ESG 평가지원

IOSCO(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 권고안을 기초로 산업계·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ESG 평가기관 가이드언스' 마련('23.1/4분기)

온라인 교육·포럼 등을 통해 ESG 평가기관 가이드언스 활용을 유도하고 정기적으로 의견수렴 등을 실시하여 가이드언스 보완

09



ESG 인프라 주요 정책과제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

ESG의 이해

## ESG 정보·인력 지원체계 구축

### ESG 정보 제공·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

ESG 경영플랫폼, 투자플랫폼, 환경정보공개시스템 등을 연계(링크 제공)하여 통합 정보 제공

【 ESG 플랫폼 간 연계방안(안) 】

(가칭) K-ESG 통합 플랫폼

정보 이용자	ESG 투자 플랫폼	ESG 경영평가 플랫폼	ESG 관련정보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관계자</li> <li>· 금융기관</li> <li>· 관계자</li> <li>· 투자자</li> <li>· 평가기관</li> <li>· 일반국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스피 상장기업</li> <li>· 공시 정보</li> <li>· 사회적책임투자</li> <li>· ESG 관련 정보</li> <li>· ESG 평가권 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SG 국내외 통합</li> <li>· ESG 관련 정부차장</li> <li>· ESG 정책 자각</li> <li>· 전문 인력</li> <li>· ESG 교육자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영향평가</li> <li>· 환경정보공개</li> <li>· 사회(산업)정보공개</li> <li>· ESG(ESG)정보</li> <li>· 지배구조(기업정보) 공개</li> </ul>

환경정보(E), 노동·산업안전(S), 기업지배구조(G) 등 ESG 분야별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 제고

### ESG 전문인력 양성


국내의 ESG 관련 분야 인력(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심사원, 경영컨설턴트 등)을 ESG 전문가로 전환('22.12월)

환경 분야 인력 대상으로 ESG-평가·경영컨설팅·정보공개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환경정보공개제도 검증위원 자격 부여('23년)

국내 ESG 전문가와 해외 연구기관의 공동연구·포럼 등을 추진하여 글로벌 ESG 전문가 역량 강화

특성화 대학원·지역거점 대학교 등에 ESG 교육과정(커리큘럼, '23년)을 개설하고 교육수요 등 감안해 장기 학위과정 개설 검토

10



ESG 인프라 주요 정책과제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

ESG의 이해

## 공공부문 ESG 경영 및 투자 선도

### 공공기관의 ESG 경영 촉진

ESG 위원회 구성(공기업·준정부기관), ESG 공시항목 확대 및 경영평가 반영·환류를 통해 공공기관의 ESG 경영 역량 강화

환경·안전 등 분야별 관련정보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 지원


### 연기금 ESG 투자 확대

국민연금기금의 ESG 통합전략(ESG 요소 고려해 투자결정) 적용 자산군 확대(국내 → 해외 주식·채권)

산업은행 탄소넷제로 프로그램('22년, 2,700억원)·탄소스프레드('22년, 5조원) 등 정책금융기관의 ESG 금융지원 확대

공공부문의 ESG 경영·투자 선도로  
민간 ESG 자발적 확산 유도

11



추진 체계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ESG의 이해

## [가칭] 민관합동 ESG 협의회 설치


**추진체계: 민관합동 ESG 협의회 설치**

(추진배경) 부처간, 정부·기업간 긴밀한 소통을 통한 ESG 정책 마련 필요성 제기

(역할) 부처간 유기적 협업과 폭넓은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 창구로서 기능


(운영) 기재부 차관 주재로 회의 개최('23년초 kick-off 회의 개최)

(구성) 기재부 차관 주재, 관계부처 차관 + 민간전문가



구성	• 기재부 1차관 주재, 관계부처 차관 + 민간전문가
기능	• 부처별 ESG 관련 정책 협의·조정 • 기업계·금융계 등 민간 의견 수렴
주요논의사항	• ESG 공시 논의동향 및 정책과제 • ESG 경영·투자 논의 동향 및 활성화 방안 • ESG 발표 정책 추진실적 점검 • ESG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2




추진 계획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ESG의 이해

과제	'23	'24-'25	담당부처	과제	'23	'24-'25	담당부처
<b>ESG 공시제도 정비</b>				<b>ESG 정보·인력지원체계 구축</b>			
① 공시 국제표준화 • ESG 공시 표준화 논의 참여 • ESG 국내 공시기준 마련 • ESG 공시 의무화 방안 마련			금융위	① ESG 정보제공·이용 활성화 • ESG 플랫폼 간 연계 강화 • ESG 경영지원 플랫폼 구축 • 환경정보·산업안전·기업집단 포털 고도화			산업부, 중소기업부, 환경부, 고용부, 금융위
② 공시·정보공개제도 연계 강화			기재부, 금융위, 환경부, 고용부, 공정위	② 전문인력 양성 • ESG 관련분야 인력을 ESG 전문가로 전환 • 대학원내 ESG 교육과정 신설 • ESG 특성화 대학원 개교			산업부, 환경부 산업부, 환경부 산업부, 환경부
<b>중소기업 지원 강화</b>				<b>공공기관의 ESG 경영 및 투자 선도</b>			
① 중소·중견기업 ESG 경영 확산 • K-ESG 가이드라인 고도화 • 체크리스트·자기진단 고도화 • 교육·컨설팅 강화 • 인센티브 제공			산업부	① ESG 경영 촉진 • 공공기관 ESG 공시항목 확대			기재부
② 수출·협력 중소기업 지원 강화 • ESG 공급망 실사 대응력 향상사업			산업부	② 연기금 투자 확대 • 국민연금 ESG 투자 확대 • 정책금융기관 지원 확대			보안복지부 금융위, 환경부
<b>ESG 투자 활성화</b>				<b>민관합동 ESG 협의회 설치</b>			기재부 등
① ESG 채권 발행·투자 활성화 • 녹색분류체계 시행 •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 마련 • 사회적분류체계 마련 • 지속가능채권 가이드라인 마련 • ESG 지수 다양화 및 SRI채권 사후보고 강화			환경부 기재부 기재부, 산업부 기재부 등				
②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 및 확산			금융위 등				

13



마무리하며...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ESG의 이해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의 목적이 '기업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 경제 구축'임을 밝히고 있으나 ESG 투자나 평가에 대한 대응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 **지속가능한 경제 구축을 위한 '지속가능성' 자체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

ESG를 '투자나 수출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은 당장 닥칠 현실적 이슈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지속가능경영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SG 고도화의 단계별 진척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가 공개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14

**한국 지자체 ESG 현황**

이창언 경주대학교

**○ 공공기관의 ESG 도입 절차 전략으로**

- 1단계. 초기 ESG 관련 실무 업무를 기획·조정할 ESG 담당자 우선 지정
- 2단계. 정부 통합공시 항목에 포함된 ESG 경영 항목부터 우선적 실적 관리
- 3단계. ESG에 대한 전(全)사적 인식 제고
- 4단계. ESG 도입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기관별 맞춤형 외부전문가 컨설팅 실시
- 5단계. ESG 경영실적 관리·활용 등을 제시함

**○ 단계를 계획 (2025년까지)**

- 중소기업 대상 교육·컨설팅 확대 우선적 실시
- 중소기업 유형별 차별화 맞춤형 인식 저변 확대
- 기업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E(환경) 부문 맞춤형 지원 추진
- 평가 관리지표 마련 및 활용 홍보

- 경영 가이드라인 마련
-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 조례 제정이나 지원팀 구성 등 지원 관련 제도적 기반 수립
- 우수 중소기업 가산점 및 공공조달 확대
- 경영진의 인식제고와 최소 담당 인력 지정 배치 등을 추진

**○ 중장기계획 (2026년 이후)**

- 중소기업의 최우선 정책 수요에 집중 지원
- 우수 중소기업 인증 및 홍보 강화
- E(환경) 부문 자체 대응 전략 강화
- 대·중소기업 협업 강화
- 중소기업 CEO 포럼 창설·운영
- 친환경 공정 설비 전환 및 구축 지원
- 탄소중립 달성 중점 지원 등

38

정부 지자체의 ESG와 SDGs 대응 필요성

이창언 경주대학교

**○ 중앙정부-경상북도 광역, 기초 지자체가 ESG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ESG가 정부 관할 구역과 그 내부에서 운영되는 회사 모두에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차별화 지점이 되고 있기 때문임. 지속 가능성 성과는 세계적으로 "상정된 안건"이 되었음

- ESG가 사람, 사회 및 제도 구조와 환경을 보호하고 민주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정부의 의무와 교차하기 때문임
- ESG가 비즈니스 및 투자 유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 정부의 신용등급과 차입비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39

신용평가기관이 정부 신용등급을 부여할 때 ESG를 고려하는 방식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요인	항목	세부항목
<b>환경적 요인(E)</b>	온실가스 배출 및 대기질	경제 및 수익 성장에 대한 제약 조건으로서의 배출 및 대기 오염; 정부/규제 표준의 시행/준수
	에너지 관리	시행/정부/규제 표준 준수를 포함하여 에너지 자원 관리가 경제 및 정부 운영에 미치는 영향
	수자원 관리	수자원 가용성은 정부/규제 표준의 시행을 포함하여 경제 및 정부 운영에 영향을 미침
	생물다양성과 천연자원관리	천연자원 관리가 경제와 정부 운영에 미치는 영향
	자연 재해 및 기후 변화	극단적인 기상 사건 및 기후 변화가 자연 재해 치료와 관련된 경제, 정부 운영 및 정책에 미치는 영향
<b>사회적 요인(S)</b>	인권과 정치적 자유 정책 틀	사회 안정과 인권 보호에 관한 제반 사항
	인간 개발, 건강 및 교육	보건 및 교육이 경제 자원 및 정부 운영에 미치는 영향
	노사관계 및 관행	노사 협상과 직원 만족도 등
	공공 안전 및 보안	산업 환경 및/또는 경제 성과에 대한 공공 안전 및 보안(사이버 보안 포함)의 영향.
	인구통계	경제력 및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노동력 공급, 가계 소득, 인구 및 고령화 등)
<b>거버넌스 요인(G)</b>	정치적 안정과 권리	정치적 압력 또는 불안정이 운영에 미치는 영향, 예측할 수 없는 정책 변화에 대한 경향.
	법치주의, 제도와 규제의 질, 부패의 통제	정부의 효율성, 부패의 통제, 규제 품질, 관리 관행과 그 효과, 재산권의 존중.
	국제 관계와 무역	무역 협정과 경제 및 수익 성장에 미치는 영향
	채권자 권리	채무 상환 의지; 미결제 또는 미결제 소송에 대한 노출.
	데이터 품질 및 투명성	공공 부채 및 우발 부채의 투명성을 포함한 재무 데이터의 품질 및 적시성에 대한 제한.

40

### 지자체의 ESG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역할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 1 ESG는 사람, 사회 및 환경 보호와 교차하기 때문에 사람, 사회, 환경을 지키는 제도 시스템 구축이라는 정부-지자체의 의무와 교차함. 정부-지자체가 사용, 폐기를 관리, 보건 및 안전, 성별 형평성 또는 기업 지배구조(몇 가지 예)를 규제하는 법률, 규정 및 정책을 제정하거나 변경함에 따라 기업의 ESG 성과와 관할권 자체에 대한 ESG "이야기"에 연쇄적인 영향이 발생
- 2 ESG는 비즈니스 및 투자 유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글로벌 투자자가 ESG 요소를 사용하여 자금을 투입하는 위치를 지정함. 정부-지자체가 명확한 ESG 공시와 강력한 ESG 성과를 지원하는 한, 이는 해당 지역의 기업 간 투자 경쟁력과 조달 경쟁력을 향상시킴. 투자유치기관이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관내로 유치하려 할 때 더 나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함
- 3 정부-지자체의 신용 등급과 차입 비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ESG 등급을 받는 쪽에 있는 기업 뿐만 아니라 관할권도 점점 더 커지고 있음. 지난 몇 년간 무디스, S&P, 피치, MCSI 등 주요 신용평가 및 투자조사기관들은 시, 지역, 국가 차원의 정부 리스크 평가에 ESG 요인을 적용하기 시작함. 그들의 ESG 등급은 정부-지자체의 신용 등급, 자금 조달 및 차입 비용 확보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41

### 지자체의 ESG 이행체계 구축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h4 style="background-color: #3498db; color: white; padding: 5px; text-align: center;">강력하고 일관된 ESG 보고 지원</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1 기후 공시 보고 의무화</li> <li>02 공기업의 완전한 ESG 공시 권고 또는 요구</li> <li>03 관할 지역의 기업을 위한 자체 ESG 표준/프레임워크 생성</li> <li>04 특정 ESG 프레임워크</li> <li>05 현지 관련 주제에 대한 지침</li> </ul>	<h4 style="background-color: #3498db; color: white; padding: 5px; text-align: center;">ESG 성능 기준 상향 조정</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7 관할 구역 자체 ESG 성과 벤치마킹 및 개선</li> <li>08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정책 및 규정의 견고한 기반 구축</li> <li>09 기업별 ESG 성과에 대한 목표, 벤치마크 또는 임계값 설정</li> <li>10 ESG 허가 또는 감독 관련 의사 결정</li> <li>11 ESG 기준을 사용하여 정부 투자 관리12 지속가능성 기준에 따른 공공조달 관리</li> </ul>
<h4 style="background-color: #3498db; color: white; padding: 5px; text-align: center;">ESG 사례 전달</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3 ESG에 관심 있는 사용자를 위한 데이터 구성 개선</li> <li>14 데이터 및 브로드캐스트</li> <li>15 제품 원산지 인증</li> </ul>	<h4 style="background-color: #3498db; color: white; padding: 5px; text-align: center;">강력하고 일관된 ESG 보고 지원</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6 "ESG 투자" 정의</li> <li>17 "녹색" 및 "전환" 금융 상품 정의 등</li> <li>18 투자자에게 지침 제공</li> </ul>

42

**지자체의 ESG 이행체계 구축 방향과 과제**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

**1) SDGs와 연계된 ESG 경영 시스템 구축 전략**

○ 지자체 ESG 경영은 지자체에서 수행해 온 SDGs 이행, 실천 시스템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에서 수행해야 함

- 기업의 활동에 친환경과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하고 미래지향적인 경영을 의미하는 ESG는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국제사회영역에 처음 공론화한 기구인 UN환경계획(UNEP)에서 1992년 금융계 이니셔티브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06년 UN 글로벌 콤팩트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업과 금융계의 동참을 장려하기 위한 'ESG를 고려한 책임투자원칙(UN PRI)'을 시작하며 처음 등장함
- 인권, 노동, 환경과 반부패에 관한 유엔 글로벌 콤팩트의 10대 원칙은 세계적인 협의 과정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선언과 협약에서 유래. 이 원칙은 세계인권선언(1948)/ 노동에서의 권리와 기본 원칙에 관한 ILO 선언(1998),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1992),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2003)에 영향을 받았음
- UN PRI에는 현재도 전 세계 4,070여개 기관이 가입하고 있으며, 기업과 금융계의 지속가능성 향상 방안에 대해 국제기구와 글

로벌 표준기관, 기업들이 함께하며 연구와 제안을 확대하고 있음. 앞서 UN에서는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한 정부, 기업, 대학, 금융, 시민사회 등의 거버넌스 활동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산업계의 역할을 집약한 전략이 바로 ESG인 것임

-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폭넓은 범위와 특성으로 인해 산업계 외의 다양한 분야(주체)와 협력적 관계가 필요하고 특히 지방정부와의 관계에 있어 탄소중립과 ESG실천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지역 주민그룹의 수용성 확보를 위한 중재자 역할, 로컬 SDGs 이행을 위한 총괄적 조정 기능 등에 있어 지방정부와 기업간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작동해야 함

○ 지자체 지속가능발전 지표는 시정의 현실을 파악하는 온도계이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로 전 지구적 가치와의 부합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는데, 측정 불가능한 지표, 가치중립적인 현황 지표 등도 포함되어 있어 목표점을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보다는 지표의 변동사항을 관리하는 수준이었음. SDGs 지표를 ESG 지표에 연계하여 설정하는 노력이 시도되어야 함

**지자체의 ESG 이행체계 구축 방향과 과제**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

**2) 지자체 ESG 원칙과 방향 :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전략 구사**

○ 중소기업 맞춤형 ESG 진단 및 컨설팅 지원과 ESG 중소기업 플랫폼 구축 지원

- ESG 경영은 현재 대기업의 노하우가 많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이러한 대기업의 전략을 여건에 맞게 벤치마킹하고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내 ESG 경영 도입을 준비하도록 함
- ESG 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보호, ESG 참여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중소기업 SDGs ESG 활성화를 위해 단계적으로는 가이드라인 제공, ESG 교육 및 인식 확대, ESG 위험 발생 상황 대응 긴급 지원 창구 마련 같은 조치가 필요
-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유인 기제를 제공해야 함. 일례로 구체적 목표가 될 수 있는 벤치마크 제시, ESG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 금융 공급, ESG 데이터 관리를 위한 오픈 플랫폼이 제공되어야 함(이창언, 경주신문).

충청남도 2022년 중소기업 ESG 역량강화 사업개요 및 절차

<b>[기업진단]</b> 기업별 진단 보고서 발간 : 50개사	<b>[기업지원]</b> - 교육 및 컨설팅 : 50개사	<b>[역량강화]</b> - 친환경 설계 구축 지원 : 4개사	<b>[인식확산]</b> - ESG 세미나 개최 : 도내 중소기업
<b>광고 및 접수(4월)</b> 참여기업 - 진흥원 - 사업공고 및 지원기업 모집	<b>선정(5월)</b> - 진흥원 - 참여기업 - 평가 후 기업 선정통보	<b>협약체결(6월)</b> - 진흥원 - 참여기업 - 운영업체 - 진흥원, 기업, 운영사 협약체결	
<b>ESG 세미나 개최(11월)</b> - 참여기업 - 진흥원 - 결과발표, 우수사례 발굴 - ESG 세미나 개최	<b>친환경 설계지원(-10월)</b> - 진흥원 - 참여기업 - 수요기업 4개사 발굴 - 친환경 설계 구축 지원	<b>진단, 교육 및 컨설팅(-8월)</b> - 참여기업 - 진흥원 - 선정기업 대상 기업진단, 교육 및 컨설팅 진행	

충청남도경제진흥원(2022). "2022년 중소기업 ESG 역량강화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경기도 중소기업 ESG 민간협의회 구성(안)

<b>공동위원장</b>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임종범·분야별 업계 의견수렴·확산	경기도 중소기업 ESG 지원	경기상공회의소 ESG 모범·교육 등 정부지원사업 연계
<b>중소기업 지원기관</b>		<b>민간 협·단체</b>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간사), 경기도테크노파크, 경기산업부 등 - 중소기업별 ESG 체크리스트 - 중소기업 ESG 플랫폼 구축 - ESG 관련 사업 및 후속지원		경기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경기상공회의소, 대기업 협회(고려사), 관내 중소기업 산단 대표 관계자, 한국생산성본부 등 - ESG 교육·컨설팅 - ESG 체크리스트 활용·확산
<b>중소기업 ESG 확산</b>		
경기지방중기청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민간 협·단체 지부		



지자체의 ESG 이행체계 구축 방향과 과제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중소기업 대상 ESG 교육·컨설팅 확대 우선적 실시	지자체 행정과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ESG 교육·컨설팅 확대 추진계획을 공동 수립하고, 집행은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	
중소기업 유형별 차별화 맞춤형 ESG 인식 저변 확대 방안 추진	업종 중에서는 건설업 정보서비스업, 규모에서는 종사자 수와 매출액이 낮은 중소기업, 공급망 구조에서는 대기업·중견기업 납품 이외 공급망 형태를 가진 대부분의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ESG 교육·컨설팅을 실시	
기업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E(환경)부분 맞춤형 지원 추진	E(환경)부분 맞춤형 지원 추진시 업종별, 종사자 수별, 매출액 규모별, 공급망, 구조별로 각각 나누어 이에 따른 중요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과제사업부터 먼저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함 예를 들면 21-100인 이하 중소기업은 환경오염물질 저감, 101- 300인 이하 중소기업은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임.	
경기도 중소기업형 ESG 평가 관리지표 마련 및 활용 홍보	중소기업형에 맞는 널리 실용적이면서 적용가능하고 한편으로 평가에 초기 기초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평가 관리지표를 마련하여 이를 활용하도록 홍보하는 정책이 필요함, 중소기업형 ESG 평가 관리지표 마련 및 활용 홍보는 시중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수립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중소기업 ESG 경영 가이드라인 마련	ESG 경영 가이드라인은 너무 방대하고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아 중소기업이 활용 적용하기에는 복잡하고 현실성이 떨어져, 중소기업이 ESG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중소기업의 현실과 여건에 맞게 좀더 간략히 실용적으로 마련하여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지자체 중소기업 ESG 경영 가이드라인 마련은 중앙 시중의 자료로 토대로 지자체가 자문을 거쳐 수립하는 것이 적절함	
경기도 중소기업 ESG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중소기업의 ESG 도입 확산을 위해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방안을 모색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지향 관련 제도적 기반 수립	지자체는 조직내부에서 지원 관련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요구됨, 대표적인 제도 수립으로 경기도는 도의회와 협력하여 ESG 관련 조례를 조속 제정하고, ESG 지원팀을 신설하며 예산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SG 우수 중소기업 가산점 및 공공조달 확대	ESG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ESG 우수 중소기업에 각종 공모 선정 평가시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조속 시행하고, 이를 우수 기업이 공공 입찰 조달시 혜택도 함께 제공하는 방안을 도입, ESG 우수 중소기업 가산점 및 공공조달 확대는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중남도와 함께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경영진의 ESG 인식제고와 최소담당 인력 지정 배치	CEO는 ESG 인식제고를 위해 관련 교육·컨설팅 참여에 스스로 적극 나서고, 조직 내부적으로는 ESG 전담인력을 1명이상 우선 지정 배치하는 ESG 리더십이 요구됨	
ESG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기진단 실시 활성화	체크리스트 점검을 통해 ESG 경영에 대한 해당 기업의 현주소와 실상, 앞으로의 방향점이나 전략, 진단 점검	
ESG 요소별 중요 평가지표에 대한 자체 준비 대응력 강화	평가지표 관리와 달성에 우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중, 중소기업은 E(환경)부분과 관련해서는 '환경오염물질 저감', S(사회)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G(지배구조)부분과 관련해서는 '기밀유리 강화'에 각각 내부 최우선 역점을 두고 성과를 위한 자체 역량을 결집해 나가도록 함	

지자체의 ESG 이행체계 구축 방향과 과제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중소기업의 최우선 정책수요에 집중 지원 추진	중장기적으로 지자체 관내 중소기업의 ESG 도입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핵심 분야를 'ESG 경영을 장려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 'ESG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 및 홍보 강화', 'ESG 교육 기회 및 정보자료 제공 확대'에 두고 지원 역량을 집중해 갈 필요가 있음	
ESG 우수 중소기업 인증 및 홍보 강화	중소기업의 ESG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의 하나로 인프라 기반 구축 차원에서 ESG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 및 홍보 제도를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 이러한 인증 및 홍보 제도는 의외로 중소기업들이 지자체에 많이 원하는 정책분야로서 ESG 도입 확산에 하나의 기폭제 기능을 할 수 있음	
E(환경)부분 자체 대응전략 강화	ESG의 E(환경)부분과 관련해서는 탄소중립 달성 분야가 가장 큰 이슈이고, 대안을 찾아 중소기업 스스로도 대응해 나가야 할 중요한 관리지표 분야이기 때문에 이행방안의 하나로 우선 RE100, EV100 이행계획부터 수립·실천해 볼 것을 제안함	
대·중소기업 ESG 협업 강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납품하면서 협력사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대기업·중견 기업은 협력사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적극 지원하고, 협력사 중소기업은 대기업·중견 기업의 협력사 중소기업 ESG 경영협력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함	
중소기업 CEO ESG포럼 창설·운영	소기업 CEO의 ESG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우수사례 정보공유를 통한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CEO ESG포럼을 창설·운영하도록 함	
친환경 공정설비 전환 및 구축 지원	E(환경)부분에 대한 성과달성을 위해서는 기업의 제증생산공정 시스템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친환경적으로 전환 및 구축하는 것이 관건임	
탄소중립 달성 중점 지원	탄소중립 달성 중점 지원은 중앙정부, 충청남도, 지자체, 기업 모두 함께 협력 역할분담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때 소기업의 성과를 낼 수 있음.	
S(사회), G(지배구조)부분 요소 중 우선순위 중요 분야 중점 지원	S(사회), G(지배구조)부분 요소 중 우선순위 중요 분야 중점 지원은 경기도의 인센티브 제공도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 기업 스스로 실천하려는 역할 의지가 전제될 때 활성화될 수 있음.	

**지자체의 ESG 이행체계 구축 방향과 과제**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 3) ESG 제도화와 소통 전략 구사

**○ 중앙 정부 정책 연계로 정책 추진 및 달성 가능성 확보.**

-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서는 ESG가 직접적으로 언급되며 기업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한 과제들이 제시되고 있음(경제산업 전반의 ESG 기반 조성 및 ESG 생태계 확산 목적)
- 일례로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국정과제 15, 기재부), 성장 지향형 산업혁신 전략 추진(국정과제 17, 산업부),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강화(국정과제 18, 기재부·금융위),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환경부) 등
- 탄소중립과 ESG를 연계하여 실천하는 것이 필요함. 한국정부가 탄소중립 관련 ESG 경영 방향으로 그린뉴딜 발표(2020. 7)와 2050 탄소중립 선언(2020.10)을 통해 본격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50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음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에는 재정, 녹색금융, R&D, 국제협력 등 포함

**○ ESG 행정은 계획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환경·책임·투명행정의 의미를 포함하는 지자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ESG 경영평가 지표를 개발해야 함**

- 중장기적 지속과 지자체 상황을 반영한 최적의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
- 공공기관의 경영전략, 경영관리, 경영성과 여건에 맞게 ESG 관련 조직 진단(내부 리스크 관리), 경영평가 모델이 정립되고 평가지표 설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마련

**지자체의 ESG 이행체계 구축 방향과 과제**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 ESG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지자체 행정부서 및 공공기관의 경영성과 창출과 지역경제 산업발전을 위한 ESG 행정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이 필요함. ESG 경영은 개별 공공기관의 영역을 넘어 지역사회 전반에 요구되는 사안이므로 조례 제정 등을 통한 법제화된 지원정책이 필요하고 당진 ESG Initiative 공표를 통해 지자체 ESG 행정지원 정책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포함해야 함.
-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기관의 참여와 의견 수렴, 지원계획, 구체적인 사업 내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협력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각 행정부서와 산하 공공기관의 ESG 공시 의무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ESG 정보공개 통합 플랫폼**

- 통합 플랫폼은 지역 이해관계자(주주, 도민 및 시민단체 등) 및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의 사회책임투자를 유도할 수 있음
- 행정, 지역사회 공공기관 사회적 책임 활동 사례 등 교육 및 컨설팅 수행

금융위원회 제공 「ESG 정보 플랫폼」 구조도와 제공 정보

메인	서브 메뉴	대표 제공정보
① ESG 소개	• ESG 개념 • ESG 중요성 • ESG 강령/정보공개 • FAQ	ESG의 개념·의의·연혁, 규제동향 및 주요 이슈 등
② ESG 기업정보	• 기업 ESG 조회 • 기업 ESG 등급 • ESG 보고서 • 자체구조보고서 • 뉴스센터	ESG 평가등급 추이·평가보고서, 공시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자체구조보고서 등
③ ESG 통계	• 국내 ESG 현황 • ESG 편드 • SRI 채권현황 • ESG 자수산물	ESG 책임투자규모, ESG 편드 설정액·수익률, ESG 채권(SRI채권) 발행 현황 등
④ 자료실	• ESG 최신동향/기준 • ESG 강의실	글로벌 이니셔티브 국문 번역, ESG 관련 교육자료 등

지자체의 ESG 이행체계 구축 방향과 과제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 기업의 지역사회 환경 및 사회적 기여 프로젝트 촉진으로 기업 ESG 자체역량 강화 및 지역 지속가능성 확보

- 현장실사를 통한 수요자 중심형 진단 및 컨설팅(중기업별 ESG 현황 및 평가체계 점검), 지자체 인프라 구축과 지원을 위해 기업-행정 간 ESG 상시소통 체계 구축, 기업 대상 ESG 활용 역량 강화 교육, ESG 신청접수상담 등 소통 채널 구축, 담당 인력 배치, 전문가 네트워크 확보

○ 지자체 ESG 경영 실천은 지역 자원의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한 가치 이해에 기반하여야 함

- 지역 자원과제를 대상으로 한 대처, 주요 산업을 대상으로 한 대처,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처라는 세 가지 접근법을 모색
- 이 대처의 과정은 지역 환경, 사회, 경제에 대한 긍정적 영향 창출. 벨류 체인과 대상 지역사회 기업의 위상 파악과 역할 제고, 환경변화 파악과 그 영향을 이해할 때 효과적임
- 지자체 ESG 이행실천은 지역 경제사회 선진모델 확립, 다양한 인재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 촉진, 신성장 친환경 도시 만들기를 목표로 수행할 수 있음



49

지자체의 ESG 이행체계 구축 방향과 과제

이창언 경주대학교

4) SDGs-ESG 이행실천 평가와 점검

- 'SDGs-ESG 이행·실천': 우리 삶과 분리되지 않는 지자체 SDGs-ESG의 실천, 그리고 긍정적 결과를 살펴보는 것은 총체적 도시전략의 특징과 가능성을 검토하는 작업임(이창언, 2020c: 1734).

따라서 SD 추진 주체들은 지자체가 SDGs-ESG를 도입했을 때 얻는 효과를 지자체 SDGs 추진 모델에 관한 구체적인 상과 지역사회 과제 해결뿐 아니라 과제 발굴 수단으로 활용할 전략을 수립해야 함(村上周三, 2019: 7)

- 지자체 SDGs-ESG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SDGs-ESG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고 단계별 과제를 잘 이해할 때 그 효과는 배가될 수 있음. <표>은 지자체 SDGs-ESG 실행을 위한 5개 주요 단계와 핵심적 대응 내용을 설정하고 각 단계별 대응 과제가 제시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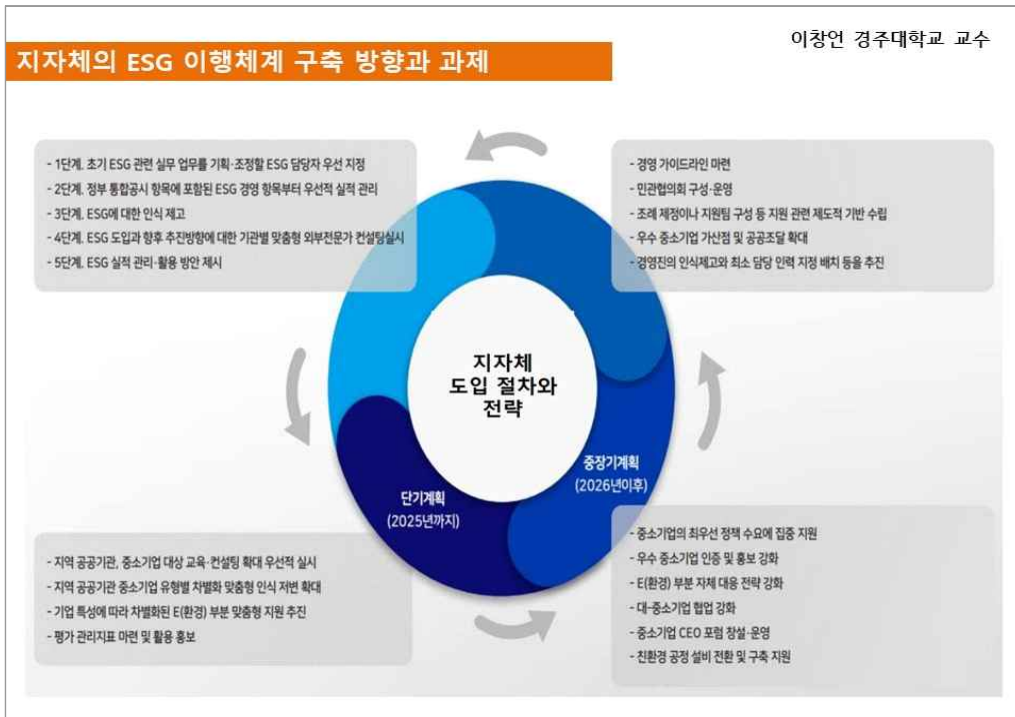
- 지자체 SDGs-ESG 추진모델은 단계별 과제 달성 여부를 판단하고, 대응 분야별 달성도를 점수화할 수 있는 평가기준표(rubric)로도 활용할 수 있음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 지자체의 ESG 이행체계 구축 방향과 과제

지자체 SDGs-ESG 추진모델 평가 기준표		
단계 구분	단계별 과제	
1단계	SDGs-ESG 이해	① 지자체 담당 공직자-지자체 내 공직자, 지방의원의 이해의 확대 ② 지역 사업자·기관과 단체의 이해 확산 ③ 전 지자체 차원의 이해 확대 ④ 시민, 소비자 이해의 확산 ⑤ 지자체 업무에 활용
2단계	대응 체계	① 소관 업무의 일부로 추진 ② 횡단조직 등을 설치 ③ 지역의 사업자·단체에 의한 추진 ④ 전담부서 설치 ⑤ 지역 이해관계자와 추진체제 정비
3단계	목표와 지표의 설정	① 선언 및 비전 설정 ② 17개 목표 간, SDGs-ESG 간 대응 관계 정리 ③ SDG 세부목표·지표, ESG 평가지표와 대응 관계 정리 ④ 지자체 현행 지표 리스트 활용 ⑤ 독자 지역 지표 설정
4단계	행동계획	① 종합전략·종합계획 등에 언급하는 ② 종합계획 중 SDGs 17개 목표, E, S, G와의 관계를 정리 ③ 독자적인 액션 프로그램 수립 및 예정 ④ 시범사업 추진 ⑤ SDGs-ESG 관점에서 누락 체크 등의 분석을 실시
5단계	후속 작업	① 평가·후속 조치 구조·체제를 검토 ② 지표를 이용한 달성 상황 내부 평가 ③ 외부 의견 반영, 외부 평가 ④ 지속적 관리를 위한 구조·시스템 구축 ⑤ 후속 조치

출처: 公益財団法人 東京市町村自治調査会(2021: 109), 이창언 교수 번역 재구성



## SDGs-ESG 이행실천시 얻는 효과

SDGs - ESG 채택 시 기업이 얻는 이익		SDGs 나침반의 5단계
<b>미래 비즈니스 기회 파악</b>	SDGs는 전 세계 공공 및 민간투자의 흐름을 SDGs가 제시하는 도전과제로 방향을 전환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SDGs는 혁신적인 솔루션과 변화를 가져올 기업에게 새로운 시장을 제시한다.	 <p style="font-size: small;">출처: GRI·UNGC·WBCSD(2015: 5)<sup>6</sup></p>
<b>기업 지속가능성의 가치 강화</b>	기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업의 동인들은 이미 잘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외부 효과들이 점점 더 내재화되고 있다. SDGs는 기업이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거나 더 지속가능한 대안들로 전환할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강화할 수도 있다.	
<b>이해관계자와의 관계 강화 및 정책 발전과의 속도 유지</b>	SDGs는 국제, 국내, 지역 차원에서 이해관계자의 기대뿐만 아니라 미래의 정책 방향도 반영한다. 기업의 우선순위와 SDGs를 통합하는 기업은 소비자, 직원, 다른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강화할 수 있다. 반면 그렇지 않은 기업은 늘어나는 법적, 평판적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b>사회와 시장의 안정화</b>	기업은 실패하는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 SDGs 달성을 위한 투자는 기업 성공의 주요 요소인 원칙 기반의 시장, 투명한 금융시스템, 부패 없는 원활한 제도 운영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b>공통 언어와 공유된 목적 활용</b>	SDGs는 기업의 영향 및 성과에 대해 이해관계자들과 더 일관적이고 효과적으로 소통하도록 행동과 언어의 공통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이 목표는 세계에서 가장 시급한 사회적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파트너들을 모으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출처: GRI·UNGC·WBCSD(2015: 4)

## SDGs-ESG 이행실천시 얻는 효과

### 정부와 지지체의SDGs-ESG 이행실천의 긍정적 효과

1. 국정(시정) 운영과 재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2. 주요한 정책 결정과정에 시민참여를 높인다.
3. 협치를 통해 공공경영의 혁신을 촉진하고, 부패방지 및 퇴치를 촉진해서 정부지배구조를 개선한다.
4. 탄소중립 확산, 환경오염의 감소, 천연자원의 보존, 기후변화에 대한 복원력 구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개발을 향상하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개선한다. 이는 기후 작용과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지원한다.
5. 새로운 형태의 경제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통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이창언, 2020b: 134).

**지자체의 ESG-SDGs 추진 시스템과 수단(도구)**은 일상적 홍보·교육모델 개발, 국제적 스포츠와 박람회와 연계한 SDGs 추진, 지방 자치 단체와 지역 기업의 강점을 살린 국내외 협력(민관산학)사업 추진, ESG-SDGs 추진 기구에 참여한 다양한 이해당사자 그룹과 네트워크 등의 연계, SDGs 달성에 동참하는 기업과 대학, 기관의 지원, SDGs-ESG 모니터링등이다.

정부와 지방정부가 SDGs-ESG를 국정과 시정 전략으로 삼고 구체적인 시스템과 수단 통해 체계적인 실행을 전개할 때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이창언, 2020e: 272).

### ESG-SDGs 이행실천시 얻는 효과

**대학이 SDGs, ESG, 실천시 얻는 효과**

**SDGs, ESG는 대학의 ▶ 교육, ▶ 연구, ▶ 대학 내부의 거버넌스 문화와 윤리 확산과 운영의 혁신, ▶ 사회적 공헌이라는 4가지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SDGs, ESG, ESD(지속가능발전교육)는 학제간 및 학제 전반에 걸친 연구를 통해 대학과 사회의 혁신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국제-국가-지역 차원의 정책 제언과 실행력을 확보함으로써 연구기관으로서 고유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기업, 지자체, 대학, 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다부문의 협력을 통해 연구역량을 구축할 수 있다.

**ESG,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을 통해 대학 교양, 전공 교육의 다양화, 대학 교양교육의 목적 실현, 책임감과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역동적인 학생들이 주축이 된 SDG, 탄소중립 실천과 대학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

고질적인 낡고 관료적인 대학 운영을 혁신하고 SDG-ESG와 연계된 거버넌스 및 운영을 모색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대학의 혁신활동은 대학 보고서에 통합하여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공헌을 위한 다부문의 참여와 대화, 그리고 행동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의 중요한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

55

### 지자체 ESG 경영의 7가지 특징과 5가지 실천방안

**명확한 타겟**

기업을 둘러싼 수많은 이해관계자, 수요자 중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대기업은 주요 고객인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중소·중견기업은 수요자(납품처) 지향으로 ESG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거버넌스, 성과관리체계**

사외이사 추천, 지속경영위원회, ESG경영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 감사위원회 등을 통한 이사회의 투명한 지배가 ESG 평가에서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핵심평가지표인 KPI의 평가체계도 중요하다. 기업들은 CEO 평가에 ESG성과를 반영하고 있으며, FTSE 100 중 45%의 기업이 KPI에 ESG 평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공시, 커뮤니케이션**

기후변화가 기업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는 TCFD(Task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와 같은 글로벌 가이드가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공시기준의 표준화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다양한 공시기준에 주의를 기울이며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ESG 경영을 위한 5가지 실천방안

**측정, 평가를 통한 성과의 입증(verify)**

다양한 글로벌 평가체계를 활용하거나 기업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측정체계를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성과를 대외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균형 잡힌 지표, 관리체계**

ESG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묻는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모든 요소를 고르게 선택하였다. 따라서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최근 주목받는 E 외에 S, G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노력이 있어야 한다.

**Value Chain 상의 더 큰 책임**

기업의 전통적인 책임영역뿐 아니라 원자재 및 제품 폐기까지 수요자, 공급자에 이르는 밸류체인 전체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지배화, 경쟁력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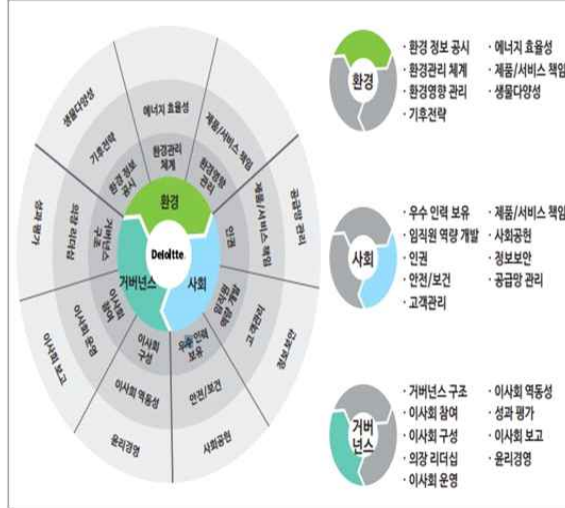
SAB Miler는 모잠비크의 제1농산물인 Cassava라는 현지 원료로 맥주를 개발하여 아프리카 전체 시장의 40%를 차지하였다. ESG의 요소를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로 연결시킨 좋은 사례다.

56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

## 생각 나누기

1. ESG 이행 실천체계 구축의 필요성은?
2. ESG와 SDGs에 포함된 지속가능성의 의미는 무엇이며, 지자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지자체 ESG, SDGs 확산과 시스템 구축,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4. ESG는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미지 출처: 딜로이트 안회계법인

## 지자체 ESG 포럼의 비전(Vision)과 임무(Missio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세부목표 및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의 확산과 실천을 위한 네트워크.

지역사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모색하고 지자체 SDGs·ESG 경영 연구와 교육, 제도화를 실천해서 도시, 대한민국, 지구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함.

- 도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도모하고 도시(지자체, 공공기관, 의회, 시민사회)에 SDGs · EDG를 주류화
- 도시 SDGs · ESG 확산을 위한 교육과 연구 수행.
- 도시 SDGs · ESG 실행을 위한 증거 기반 정책과 양질의 교육, 정보 제공.
- 도시 SDGs · ESG 제도와 체계의 정착, 진행 상황 모니터링과 평가.
- SDGs · ESG SDGs 목표 달성, ESG 실행을 위한 다중 이해관계자의 대화 및 지식과 정부, 교류 촉진

## ESG 포럼의 주요 활동

- 도시 SDGs · ESG 네트워크 구축, 다중 이해 관계자 회의
- 도시 SDGs · ESG 연구 및 교육
- 도시 SDGs · ESG 학술 간행물, 교재 발간
- 도시 SDGs · ESG 정책 브리핑
- 도시 SDGs · ESG 연례 심포지엄, 세미나, 워크숍 개최
- 도시 SDGs · ESG 강좌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도시 SDGs · ESG 연구 협업, 네트워킹 및 촉진
- 도시 SDGs · ESG 평가와 모니터링



[토론문]

## 「한국 ESG의 사회적 가치와 과제」에 대한 토론 : 지자체의 ESG 이행

강 충 호

(아주대학교 공학대학원 융합ESG학과 특임교수)

-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나 지자체가 ESG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 그 이유는 첫째, ESG가 사람, 사회 및 제도 구조와 환경을 보호하고 민주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지방)정부 의무와 교차하기 때문임. 둘째, ESG가 (지역내) 기업의 비즈니스 및 투자 유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셋째, (지방)정부의 신용등급과 차입비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sup>1)</sup>
- 나아가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시대적인 과제로 대두된 ESG에 지방정부나 지자체들이 적극적이고 올바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특히, 시민들의 삶의 터전이라 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운영하고 시민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할 것임.
- 이러한 상황인식에 입각하여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의 지방정부는 풍부한 인프라와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와 사회불평등 문제 등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ESG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반면, 국내의 시·군·구 단위의 기초지자체는 물론 광역지자체들도 ESG의 의미와 동향에 대한 인식이나 정보가 부족하여 자신의 정책과 행정에 무엇을 어떻게 반영하고 실천해야 할지에 대한 뚜렷한 전략이나 이행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1) 이창연(2023). 정부-지자체의 ESG 이행 실천의 필요성과 과제. ESG 정책브리프, ESG코리아 경기네트워킹/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 그런 가운데, 충청남도는 동아시아 최초로 '기후 비상상황'을 선포(2019.10)한데 이어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제정(2019.10)을 통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노후석탄화력 조기 폐쇄를 추진하는 등 목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부산 및 대전광역시를 비롯하여 일부 광역지자체들이 지역내 기업들, 특히 인적 물적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ESG 경영 지원에 나서고 있음.
- 아울러 최근 전북도에서 도교육청 관내 초·중·고교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ESG 교육을 시작한 것은 ESG가 지향하는 미래와도 맞닿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임. 수원시, 당진시, 서울시 성동구 등 여러 기초지자체들도 취약한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의 인식과 의지를 바탕으로 주민생활과 밀착된 다양한 ESG 정책을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사례임.
- 탄소중립과 관련하여서는 개별적 대응 수준을 넘어서 2020년 7월에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전부와 수원시를 비롯한 64개의 기초지자체가 참여하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발족하여 '2050년 탄소중립 실현,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삶 추구, 탄소중립 사업 발굴 및 지원, 지자체 간 소통 및 공동 협력, 선도적인 기후행동 실천'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로 함. 이를 위해 지역 여건에 맞추어 △기후변화 대응 조례 제정 및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지역특화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 △지역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의 공동실천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실천연대'가 결성된 지 1년여가 지난 2021년 5월에는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들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다짐하는 선언식을 개최하여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적인 주목과 찬사를 받기도 함. 따라서 이러한 노력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지속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한편, 발제문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ESG는 기후변화와 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거버넌스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아젠다라는 점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같은 사명을 지녔음. 그리고 ESG 실행은 궁극적으로 SDGs 이행을 위한 것이므로, 각 지자체들은 UN SDGs 혹은 K-SDGs와의 통합적인 이해에 기반한 ESG 정책과 행정이 요구됨.

- 해외 및 국내의 여러 지방정부 사례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것처럼, UN SDGs는 환경 문제를 지역사회의 실천으로 가져오게 하는 등 지속가능성 이슈를 지역 의제에 포함시키는 지표 또는 벤치마크를 이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 또한 SDGs 이행 및 관련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도 함.
- 이와 관련하여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설치(법 제18조)해야 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기본전략'(법 제5조)과 '이행계획'(법 제6조)을 수립해야 하며, '이행사항에 대한 보고서'(법 제14조)를 작성 및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다수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 제정을 비롯한 후속조치에 나서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각 지자체의 ESG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위험사회와 ESG

박 범 기

(한독교육복지연구원 책임연구원)



### I. 들어가며: 위험사회의 등장

#### 사회위험의 등장과 위험사회로의 진화

- 전통적 위험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생성되며, 이런 배경에서 산업재해나 실업 같은 위험이 발생.

- 신사회위험은 노동시장의 불안정 및 젠더 관계 변화로부터 발생 → 일과 가정양립어려움, 한부모 가족증가, 사회보장적용의 불안정.

- 울리히 벡(1999)은 전통적위험과 신사회적 위험과 다른 차원의 위험인 위험사회 논의를 펼침. 위험사회는 일국의 위험이 아니라 전지구적 차원의 위험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다양한 원인 및 경로를 가진 예측 불가능한 위험. 예를 들어 <2008년 리먼브라더스 발 경제위기>, <2011년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사건>, <2020년부터 발생한 코로나 사태>등임.



무로 감옥에서 출몰 한 시가자의 남포 남간마을 1911 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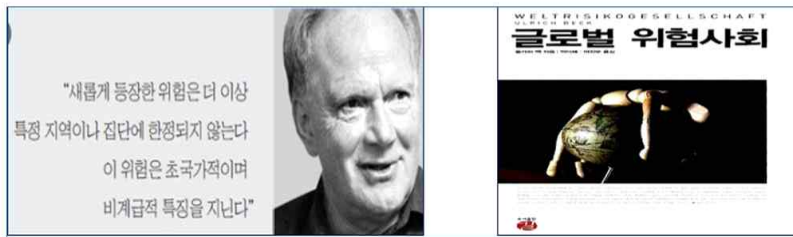


## I. 들어가며: 위험사회의 등장

### 위험사회의 특징과 성격

"새롭게 등장한 위험은 더 이상 특정지역이나 집단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 위험은 초국가적이며 비계급적 특징을 지닌다." (벡, 1997)

"근대성의 급진화로 인해 지구적 위험사회라는 역설적 결과가 나온다. 과학과 근대국가, 군대는 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의 일부가 되고 말았다. 이것이 성찰적 근대화의 의미이다. 문제는 근대성의 실패가 아니라 성공에 있다. 근대성이 의도치 않았던 미지의 부작용을 양산하는 논리에 의해 자체의 기본 제도를 무너뜨린다." (벡, 2006)



"새롭게 등장한 위험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 위험은 초국가적이며 비계급적 특징을 지닌다"

## II. 위험사회와 관련된 논의들

### 막스 베버의 도구적 합리주의

- 목적과 수단을 효율적으로 결합함.
- 윤리나 정서가 아니라 권위와 법적인 힘을 선택함.
- 최대의 기업이익이나 내부기관의 주주이익을 추구함.
- 이 목적합리성은 관료제를 산출하였고 근대자본주의의 동력이 됨.
- 파괴적인 부산물을 외부에 전가하는 단점이 있음. 예) 환경파괴, 빈부격차, 공동체 와해. 출처: 한상진(2022)



## II. 위험사회와 관련된 논의들

### 칼 폴라니의 시장의 지배

- 시장경제가 인류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제도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음.
- 아담스미스가 "어떤 물건을 다른 물건과 교역하고 거래하며 교환하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한 것은 근거가 없음. 단지 근대적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폴라니는 비판함.
- 자본주의가 등장하기 전까지 경제는 사회의 일부였음. 그러나 국가가 근대화라는 명목으로 상품화할 수 없는 토지·노동·화폐를 상품화 한 것임.
- "노동, 토지, 화폐의 상품화가 언제나 시장경제의 본질이지만, 만일 '악마의 멧돌'과 같은 시장기제로부터 인간과 자연 그리고 경제조직이 보호되지 않았다면 어떤 사회도 잠시도 견뎌내지 못했을 것." 출처: 칼 폴라니(2022). <거대한 전환>.



## II. 위험사회와 관련된 논의들

### 올리히 벡의 위험사회론과 성찰적 근대론

- 사회가 발전할수록 안전의 가치가 평등의 가치보다 중요해질 것임.
- 위험사회의 인자와 배경으로는 윤리성을 상실한 과학기술과 금융자본, 무절제한 환경파괴, 억압당한 개인과 집단의 반발, 정보사회의 위험성 등이 있음.
- "디지털시대, 초연결사회인 21세기 위험의 전염성은 빠르다. 특정 지역이나 계급과 상관없이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 과학 발전에 비례해 위험 인식도가 높아진다."
- 벡은 개인화 테제를 통해 위험사회의 위험은 생태적 위험이면서 사회통합의 위험이라는 것을 적시함.
- 위험사회에 대한 대응으로 성찰적이고 비판적인 다양한 주제들이 필요하며 위험사회와 성찰적 근대화는 인과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함. 출처: 올리히 벡(1997). <위험사회>.



### Ⅲ. ESG가 나오기 까지의 흐름과 의미

#### 환경, 사회, 기업내부관계에서의 끊임없는 사건들과 문제

- 환경문제 : 1952년 영국 런던의 스모그사건, 1990년 두산전자 낙동강 폐놀 무단방류 사건, 극심한 폭염, 지구의 온난화, 심각한 홍수 및 장기간 가뭄등의 기후변화.

- 사회문제 : 근대적 자본주의 체제 및 신자유주의 체제는 소득, 교육기회, 주거, 성평등, 식량 및 보건 등의 사회적 불평등 분배를 초래함, 쿠틀네츠의 역U자 가설은 현실에서 사실이 아님.

- 지배구조 문제 : 자본과 정치의 결합으로 정경유착문제는 고착화됨. 고도의 기술산업사회에서 정보의 불균형을 기업들이 악용해 이윤 창출함. 2003년 론스타 사건이 대표적임.



### Ⅲ. ESG가 나오기 까지의 흐름과 의미

#### CSR에서 ESG까지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ISO 26000
- 책임투자원칙(PRI)
- 공유가치창출(CSV)
- 사회혁신채권(social impact bond)
- 유엔 글로벌 컴팩트(UNGC)
- 공유경제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ESG





### Ⅲ. ESG가 나오기까지의 흐름과 의미

#### 기업경영의 패러다임 전환, 사회학적인 의미

- 외부로 부담을 전가해왔던 것을 내부화하는 것.
- 환경 : 기후변화(탄소배출 규제), 오염배출(독성물질 등 규제), 환경정책(재생에너지 등 장려)
- 사회 : 공동체 관계 중시, 소통확대, 인적자본의 안전
- 지배구조 : 투명성과 책임성, 반부패 등 기업경영의 윤리
- ESG의 사회학적 의미는 기업위주의 수단합리적 경영에 따른 다차원의 부산물 즉 파괴된 공동체를 복원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음. 생태 공동체, 이웃 및 사회공동체, 내부공동체  
출처: 한상진(2022)



### IV. 나가며: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한 기업의 ESG 실천의 필요와 전망

- 기업이 성찰적 근대화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외부에 부과한 위험을 내부화하는 성찰성을 획득할 필요성이 있음.
- 효율중심의 수단적 합리성을 넘어서는 다차원의 공동체성 소통합리성이 기업에 장착되어야 함.
- 전지구적 위험사회의 심각한 현실을 직면하고 오히려 백이 전망한 성찰적 근대성을 토대로한 공동체를 전망함.

출처: 한상진(2022)



## 참고문헌

- 울리히 벡(1997). **위험사회**. 새물결.
- 울리히 벡(2006). **위험사회**. 새물결.
- 칼 폴라니(2009). **거대한 전환**. 길.
- 한상진(2022). 위험사회와 제2근대를 향한 ESG의 역할성. **2022 토마토ESG포럼**.

[토론문]

## 「위험사회와 ESG」에 대한 토론

박 지 선

(우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 위험사회와 ESG를 주제로 한 발제자의 발표자료 잘 읽었습니다. 발제문에서는 위험사회 등장과 ESG 발전과정을 정리하고, 위험사회로 대변되는 다양한 사회적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ESG 실천을 기반으로 기업을 비롯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사회에 제동을 걸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동력을 갖추기 위해 성찰과 공동체성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발제자의 말씀에 저도 매우 동의합니다.
- 사실 공동체성 회복과 성찰은 자본주의에 입각하여 이익 추구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기업의 모습과는 매우 상충합니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비윤리적이고, 위법적인 일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이 기존 기업경영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발제문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사회가 급변하는 가운데 환경문제, 사회문제, 지배구조 문제가 표면화되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금까지의 기업경영(재무적) 가치만으로는 더 이상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 이유를 가치 소비를 중시하는 투자자나 소비자들의 등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닝아웃’이나 ‘그린슈머’ 같은 현상입니다. SNS를 활용한 MZ세대의 ‘돈꿀’과 ‘불매운동’도 가치 소비의 예일 것입니다.
- 이제 기업은 생존을 위해 경제적 가치에만 쏠리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균형감 있게 가져가면서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혁신과 노력이 필요해졌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무언가를 확보하고 있어야 그 기업의 새로운 경쟁수단이 되고, 그래야만 그 기업만의 차별

성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결국 발제문에서 강조한 공동체성 회복과 성찰이 기업의 생존을 위한,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ESG 전문가들은 ESG가 (대)기업뿐 아니라 사회 내 다양한 조직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지향점이라고 강조합니다. 제가 사회복지학 전공자다보니 기업 외의 다양한 조직으로 사회복지조직이나 비영리조직에서의 ESG 실천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 사회복지학은 사회과학 등 여러 기초학문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생성된 응용학문으로 불립니다. 사회학과 심리학은 물론 경제, 정책, 보건, 의료 등 다양한 학문에서 등장한 이론과 현상에 주목하며 사회복지라는 학문으로 재구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학문을 바탕으로 그간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경제, 건강, 교육, 주거, 여가, 문화 등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여러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며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거시적인 배경에는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 신사회적 위험과 함께 위험사회 요소들이 자리합니다.

- 사회복지의 삶의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는, 그리고 언제 나에게 닥칠지 모를 여러 위기와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하고 안심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과 대응 장치입니다. 이러한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최근 2~3년 사이에 ESG가 소개되고,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했습니다. 세화종합사회복지관이나 서울노인복지센터 등 역사와 규모가 있는 일부 복지기관에서는 ESG에 기반한 복지경영 및 실천을 발표하며 ESG를 복지관 운영에 적용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 제가 일하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서도 (물론 아직 ESG 개념이 도입된 것은 아니지만) 요양보호사의날 캠페인에 플로깅을 접목하거나 행사 기념품으로 친환경제품을 구매하는 것, 실효성 있는 보상 차원에서 직원복지후생을 고민하며 매년 조금씩 업그레이드하기도 합니다. 또 거버넌스 차원에서 조직에서는 사안에 따라 <중앙정부(보건복지부) - 지자체(서울시/자치구) - 전국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협의체 - 장기요양요원 - 장기요양기관운영자 - 학계 전문가 - 유관기관> 등 다양한 집단이 네트워크하며 협업체계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ESG라고 표현만 하지 않았을 뿐 ESG 일부 요소들이 센터 운영과 사업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 그러나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ESG는 이제 막 시작지점에 발을 들였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영역에서 ESG를 어떻게 접목할까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발제문을 읽으면서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가치

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윤리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겠다는 점을 새삼 되새겨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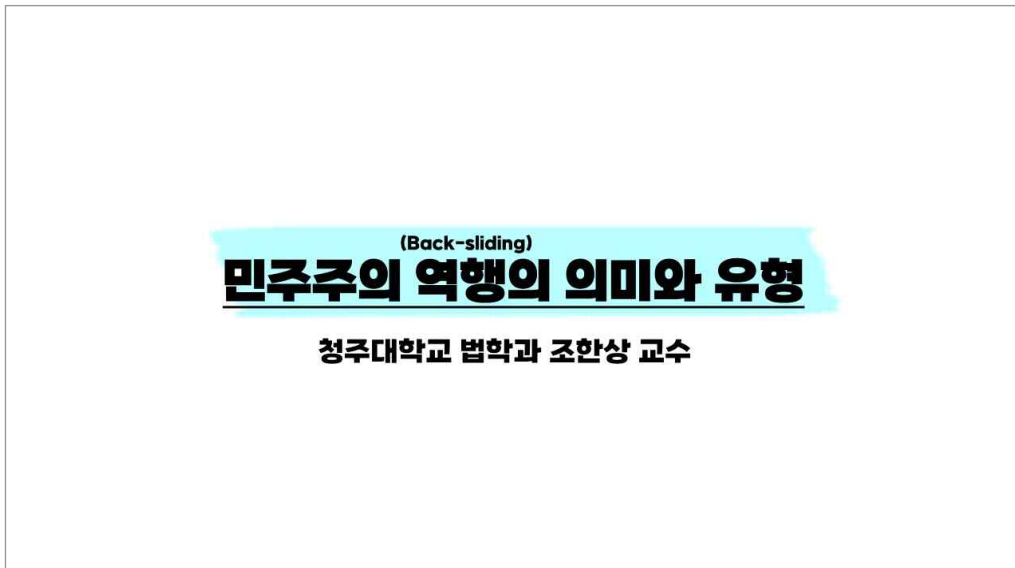
○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주제발표로 여러 함의와 생각거리를 나눠주신 발제자께 감사드립니다.



## 민주주의 퇴행의 의미와 유형

조 한 상

(청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 이 서론

#### 연구 동기

- EU 민주주의 지수 24위: '안전한 민주주의' 그룹의 최하위
- "정치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는 군부나 강력한 지도자에 의한 통치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 (EIU, 2023).



#### 연구 목적

- 2016년 옥스퍼드 대학교 비교 정치학 교수 낸시 버메오는 최근 각국에서 나타나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민주주의 역행"이라는 말로 개념화
- '민주주의 역행 관련 인접 학문분야의 논의와 국내외 현실을 고찰하여, 우리의 헌법해석과 구체화, 나아가 개정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한다.'

#### 연구의 범위

- '민주주의 역행의 의미와 유형, 특징 검토
- 민주주의 역행의 주요 원인 분석
- 민주주의 역행에 관한 논의가 우리 헌법에 갖는 함의를 정리

## 02 민주주의 역행의 의미

### 민주주의 공고화: 좌절된 기대

- 후쿠야마(1989) : 서구의 자유민주주의가 보편화되어 정부의 최 종형태가 될 것
- 립셋 : 아르헨티나 문턱"(1975년 1인당 GDP 7,500달러)을 넘어 선 국가의 민주주의는 놀랄 만한 안정성을 보인다

### backsliding

- 이스라엘이 신에 대한 충성 관계를 저버리고 "신실하지 않은" 또는 "제멋대로인" 습관에 빠져드는 일종의 배신을 가리키는 말(예레미야서 3장 22절)
- 기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정치제도를 국가 주도로 약화하거나 제거함

#### 기본 유형

- 전형적인 쿠데타
- 친위 쿠데타(autogolpes)
- 선거 당일 부정선거

민주주의 역행 사례의 수는 변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 현대적 유형

- 약속 쿠데타(Promissory coup)
- 정부 확대(Executive aggrandizement)
- 선거에 대한 전략적 조작(Manipulating elections strategically)

## 04 현대적 특징과 유인

### 속도의 변화

- 기존 법 제도와 여론의 수용력 한계를 시험하며 서서히 잠식

### 정치적 양극화

-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교차적 분열이 "우리"와 "그들"이 대립 하는 단일하고 강화된 분열로 대체

### 모호성 증가

- 투표, 국민투표 등 민주주의의 합법적 수단 이용
- 부패한 정치인, 언론을 공격 대상으로 삼으면서 정당성 확보

### 미디어

- 맹목적 지지집단을 형성하고, 자신을 견제하는 중립적 기관, 대표적으로 주류 언론의 신용을 떨어뜨리는 용도로 활용

### 합리적 반응

- 민주주의 역행을 만든 또는 수월하게 하는 유인에 대한 민주 주의 역행 주도자 또는 주도 세력의 합리적 반응의 결과

### 취약한 입법부 → 부패나 무능으로 충신을 받는 경우라면 더 취약

- 정당정치라 불안정하여 야당이 사분오열된 상황이라면, 권 력자는 쉽게 순종적인 입법부를 만들 수 있다.

공  
백

유  
인



## 05 민주주의 역행의 가시화

### 최장집

- 양극화의 심화로 위기를 맞고 있음
- 위기의 중심에 권위주의적 속성을 버리지는 못한 보수세력, 여전히 관념적 개혁을 부르짖고 있으나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린 진보세력, 여기에 새롭게 등장한 매체 환경과 정치 기법이 더해져 이른바 '동원된 다수의 전제정'이 발생할 위험

### 박명림

- 무소불위 권력 승자독식은 대화 타협 통한 갈등 완화와 안정 저해
- 진영 간 혐오와 증오를 증폭하는 원인
- 인해 복지나 노동과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도 해결이 요원해짐

### 양근영

2021년 OECD(2016년 기준) 갈등 지수: 30개 국가 중 3위, 3050 클럽 중 1위

선관위 신고 당원 수의 인구대비 당원 비율 (단위: %)



### 이치미

89%가 가짜뉴스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

### 주덕림

국회 사용 예산은 전체의 0.15%, 지난 20년 동안 정부 예산 증가율과 비교하면 국회 예산 증가율은 2분의 1  
팬덤에 휘둘릴수록 정당은 일관된 이념과 비전, 정책 대안을 발전시키기 어렵고, 따라서 장기적으로 정당은 약화, 국회는 지리멸렬해지고, 국회에 대한 불신은 높아진다.

## 06 헌법(학)적 대응

### 헌법 해석: 자유+민주주의 재조명

- 민주주의적 외관이나 명분에 현혹되어 자유의 파괴를 용인하고 결국에는 민주주의의 파괴로 이어지는 민주주의 역행 구조를 폭로하고 경계심을 촉구하는 역할
- 경종을 울려 민주주의 역행을 되돌리기에 너무 늦을 때까지 경계장이 결정적으로 기울어졌음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음 유의

### 헌법의 구체화: 입법과 헌법재판

- 소수의 지지율로 다수 의석 장악이 가능하게 만드는 일종의 의석 인센티브 제도는 그 형식이 무엇이건 위험
- 헌법상 민주적 의사형성 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언론매체의 지배구조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에서 언론 관계법을 정비하는 것은 필요
- 헌법재판소는 스스로가 민주주의 역행과정에 약용되지 않기 위해 유의

### 헌법 개정: 헌법개정 한계

- 일부 국가에서는 헌법 개정이 민주주의 역행의 트로피와 같은 역할
- 민주주의 역행 유인이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는 어떠한 방향의 정부형태 변경이건 기대했던 긍정적 효과보다는 우리 민주주의 상황을 악화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음
-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개정 한계 논의가 헌법개정 논의와 병행되도록 해야 함

## **07 결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확실히 버겁지만 극복할 수 없는 대상은 아니다. 선거 경쟁이 벌어지는 한 권력은 다시 회수될 수 있다. 시민 사회에 약간의 공간이 허용되면 반대 세력에 의한 동원(countermobilization)이 성공할 수 있다. 역행에는 일정한 유인이 존재하므로, 유인을 교정하면 부정적 추세를 역전할 수 있다.

문제는 모호하고 점진적인 형태로 변화가 발생하면서 너무 늦을 때까지 그 과정을 감지하고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눈높이 자체가 달라져, 많은 사람이 무엇이 민주주의인지 잊을 수도 있다.

민주주의를 고민하는 헌법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 연구자들의 날카로운 분석과 대책 마련을 기대한다.

**정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문]

## 「민주주의 퇴행의 의미와 유형」에 대한 토론

박 보 영

(극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작금의 현실을 생각했을 때 민주주의의 ‘퇴행(역행)’을 다룬 이 발표만큼 시의적절하고 긴요한 연구도 없을 것 같습니다. 발제자는 정치학자 낸시 버메오(Nancy Bermeo)의 개념을 차용하여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 현상과 의미를 분석하고, 헌법학적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 민주주의의 퇴행이 전지구적 현상이며, 이는 민주주의의 사회정치적 토대가 침식되고 훼손된 데서 기인한다고 발제자는 분석합니다. 특히, “선거, 국민투표 등 민주주의의 합법적 수단이 민주주의 퇴행에 이용되기 때문에 시민들(주권자)은 민주주의 퇴행을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발제자는 지적합니다. 민주주의의 퇴행이 ‘체계적’이고 ‘만성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제자는 또한 법적(헌법)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응할 나름의 방안(자유+민주주의 해석 재고, 입법부 구성의 게임의 룰 재구조화, 언론관계법 정비 등)도 제시합니다. 전체적으로,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문제의식과 강한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 본 토론자는 발제자의 논지와 주장에 공명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본 토론자는 발표 내용 자체에 대한 의견제시나 토론보다는 발표의 주제의식을 확장하는 쪽으로 토론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정책분야를 공부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논의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 민주주의의 퇴행은 쉬운 말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발제자의 논의를 빌자면, 퇴행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조성되어 민주주의가 위협해지는 상황이 상시화되는 게 민주주의의 퇴행인 것입니다. 이같은 민주주의의 위기는 결과적으로 ‘민생위기’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혹자들은 반문할 지도 모릅니다. “민주주의의 위기가 먹고 사는 거랑 뭐 상관인데?”라고.
- 민주주의의 위기는 곧 ‘정치의 위기’를 의미합니다. 민주주의는 정치의 운영원리, 즉 현대 사회에서 근원적 게임의 룰(rule)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면 갈등의 제도화가 작동하지 않고, 이로 인해 자원의 배분이 어려워집니다. 이는 곧 ‘정책의 위기’로 전화(轉化)됩니다. 정책(행정)의 본질은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고, 배분된 자원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고, 또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등이 제도적으로 조정되지 못하고 첨예화되면(되려 갈등이 조장된다면), 공동체를 유지·운영·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원의 배분도, 투입도, 집행도 어려워집니다. 정치와 뿔 레야 뿔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 정책인 것입니다.
- 이렇듯 정치위기로 인해 정책위기가 발생하면 민생도 쉽게 위기에 빠집니다. 사회경제적 현안이나 구조화된 사회문제, 중장기적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려면 예산(재정)과 주체(인력)가 필요합니다. 즉 돈과 사람이 필요합니다. 민생은 현실이고, 현실은 의지만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선진산업국가에선 이 모든 게 법제에 근거하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정치위기로 정책(행정)이 작동을 안 하고, 그로 인해 민생을 제때 챙기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안게 될 것입니다.
-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의 소명은 ‘민(民)의 복리’입니다. 이 소명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치체제에 民(시민)은 언제나 냉엄한 심판을 해왔습니다. 달리 말해, 민생을 챙기지 못한 정치체제는 혹독한 청구서를 받는다는 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로마의 공화정이 전제정으로 넘어갈 때 극심한 빈부격차(\*라티퐁다움에 의한 자영농의 몰락)가 있었습니다. 민주주의가 퇴행을 거듭하여 민생으로부터 멀어진다면 로마에서 있었던 일이 현대사회에서 재현되지 말란 법은 없을 것입니다.
- 민주주의가 냉엄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선 적어도 3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자유 관념 제자리 찾아주기. 우리나라에선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보편화되어 있음. 자유

는 기본권이고, 민주주의는 정치체제임에도 이를 병합하여 사용함. 자유는 민주주의가 보호해야 할 기본권적 가치이기는 하나, 이것의 과도한 강조는 민주주의는 물론 사회경제제도의 성숙과 발전을 저해한 측면이 있음.

- 약자와 공동선에 대한 고민이 없는 자유지상주의(신자유주의)와의 결별. 이 연장선에서 우리나라는 '발전주의(개발주의)적 신자유주의'로부터의 탈피하고 '능력주의적 자유주의'를 경계할 필요가 있음.

- 법비(法匪)적 행태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연성 권위주의'에 대한 경계. 정치적 양극화, 탈진실화된 미디어, 취약한 입법부 등은 우파 포퓰리즘의 출현과 연성화된 권위주의체제의 출현을 쉽게 할 수 있음.

○ 발제자의 치열한 지적 작업에 경의를 표하며, 부족한 토론을 경청해 주신 청중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부 워크숍

---

**연구윤리강화  
워크숍(WORKSHOP)**





한국인문사회질학회 2023년 상반기 학술대회(2023.06.09)

사회적 가치 증진과 ESG

제2부 연구윤리강화 워크숍

# 1.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교육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004 제정, 2005 시행]에 의해 배아 연구기관, 유전자 은행, 유전자 치료기관 등에 한해 IRB 설치운영 하도록 제정
- 2013년 인간대상과 인체유래물연구까지 확대 적용
- 2013년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출범(보건복지부 산하 국가생명윤리정책원)
- 기본 초점  
연구진실성- 연구수행 / IRB 연구대상보호

### <기본원칙>

1. 인권과 복지우선
2. 자율성 존중, 자발적 동의
3. 연구자의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보호
4. 연구대상자의 안전 고려
5. 취약한 환경 대상자 보호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을 위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국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

1.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하는 자 (이하 '인간대상연구자')가 소속된 교육, 연구기관, 병원 등에 설치 운영
2.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는 자(이하 '인체유래물연구자')가 소속된 교육, 연구기관, 병원 등에 설치 운영
3. 배아연구기관, 배아생성의료기관, 체세포복제배아 등 연구기관 등에서 설치 운영

\* 각 기관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각 기관의 표준운영지침에 따름

## IRB의 역할

### <심의기능>

1. 연구계획서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2. 연구대상자 등으로부터 적절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3.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4. 연구대상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5. 그 밖에 기관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3. 심의대상

- 심의대상: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 인간대상연구: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 주로 인문사회과학 영역의 연구가 이에 해당함 (참여관찰, 설문조사, 심리학 실험 조사, 취약계층 연구 등)
-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하는 연구
-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해 심의가 요청되는 연구

### 3. 심의대상



- 일반화할 수 있는 지식을 발전시키거나 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안된 연구개발, 시험, 평가를 포함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 연구의 목적 및 분석방법 등 연구 내용 제시된 연구
-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즉,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사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즉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대면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 개인식별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즉, 연구대상자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 심의면제대상



- 연구대상자와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하고,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이거나 개인식별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는 연구 중
  - ① 약물투여와 혈액채취 등 침습적 행위를 하지 않는 연구
  - ② 신체적 변화가 따르지 않는 단순 접촉 측정장비 또는 관찰장비만을 사용하는 연구
  - ③ 식품위생법에 따라 판매가 허용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이용하여 맛이나 질을 평가하는 연구
  - ④ 화장품 법에 따라 안전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이용하여 사용감 또는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연구
  - ⑤ 연구대상자가 특정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
  - ⑥ 연구대상자에 대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



## 5. 심의종류

**계획변경**

연구책임자는 승인된 연구계획서를 준수하여 연구를 수행해야 하며, 기 승인된 연구계획서에 따른 계획 변경이 필요함

**이상반응  
미준수보고**

이상반응, 의학적 사건, 승인된 계획 미준수(연구대상자 수 등...)

**종료보고**

종료 후 6개월 이내 연구수행사항 보고

## 심의서류

1. 심의의뢰서
2. 연구계획서
 

: 연구배경, 연구목적, 연구실시기관명 및 주소, 연구지원기관,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성명, 직명, 연구기관, 연구대상자(선정/제외요건), 예상연구대상자 수와 산출근거, 연구대상자모집, 연구대상자 동의, 연구방법, 관찰항목, 효과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안정성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 자료분석과 통계적 방법. 예측 부작용 및 주의사항과 조치, 중지 및 탈락기준, 연구대상자 안전대책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
3. 연구설명문 및 동의서
 

: 연구배경과 목적, 연구방법, 연구참여기간, 연구참여도중 중도탈락, 부작용 및 위험요소, 연구참여에 따른 이익, 참여하지 않을 시 불이익, 개인정보와 비밀보장
4. 연구윤리교육 이수증, 중례기록서/관찰일지/연구노트/설문지
5. 필요시 모집공고

## 6. 심의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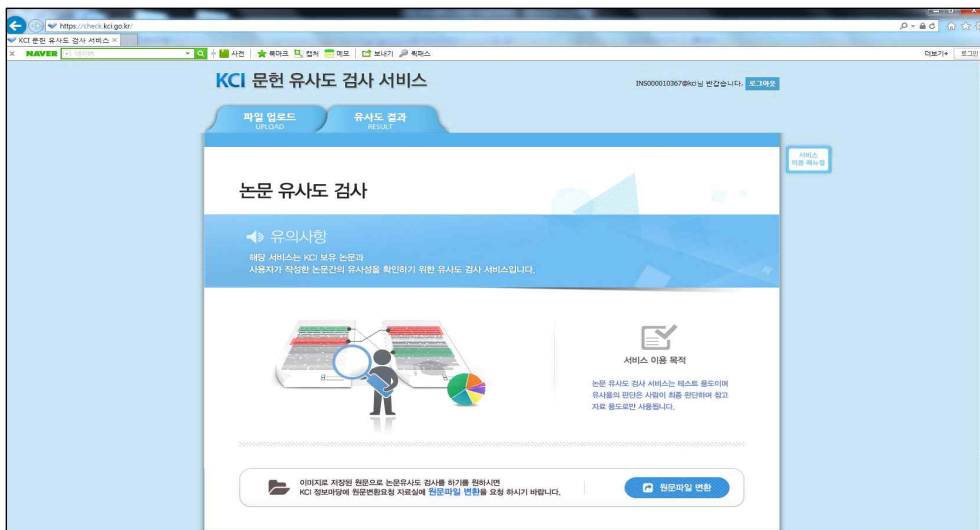
1. **승인:** 제출된 연구계획서 또는 보고서 등 자료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2. **수정 후 승인:** 제출된 연구계획서 또는 보고서 등 자료에서 일부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로서 수정 요청 사항이 연구대상자들의 보호나 수행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은 경우 (수정 사항은 전문간사가 확인한다.)
3. **수정 후 신속심의:** 제출된 연구계획서 또는 보고서 등 자료에서 중요한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로서 수정을 전제로 연구의 수행이 가능한 경우 (수정 사항의 적절성 여부는 해당심의를 검토한 책임심의위원이 재심의)
4. **보완:** 제출된 연구계획서 또는 보고서 등 자료에 연구대상자 보호 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를 위한 자료보완 또는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자료보완 또는 수정의 적절성 여부는 정규회의에 상정하여 재심의)



5. **반려:** 제출된 연구계획서에 대한 심의결과 과학적·윤리적 타당성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연구대상자 등의 보호에 중대한 문제가 있어 해당 연구의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 경우 동일한 제목과 내용으로는 접수될 수 없음)
6. **중지:** 기 승인된 연구에서 연구대상자 보호와 생명윤리 및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어 연구의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 경우 정규회의 또는 임시회의를 통해 가능하나, 연구대상자 등의 보호를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로 최대 2주 내 일시중지를 요청한 후 심의할 수 있음)
7. **보류:** 의결에 필요한 정보 부족 또는 중대한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판단을 보류하는 경우(이 경우 해당 안건은 보류를 결정한 심의위원회 다음 회의에 확인 사항이 보고되고 심의되어야 함)

한국인문사회질학회 2023년 상반기 학술대회(2023.06.09)  
 사회적 가치 증진과 ESG  
 제2부 연구윤리강화 워크숍

## 2. 한국연구재단 KCI 논문유사도 검사 활용법 안내 (1)





한국인문사회질학회 2023년 상반기 학술대회(2023.06.09)

사회적 가치 증진과 ES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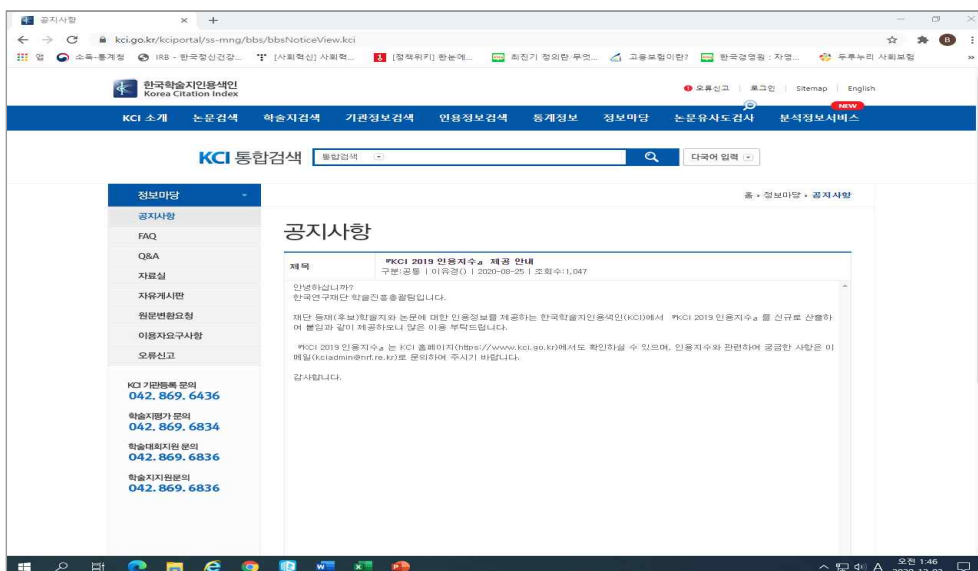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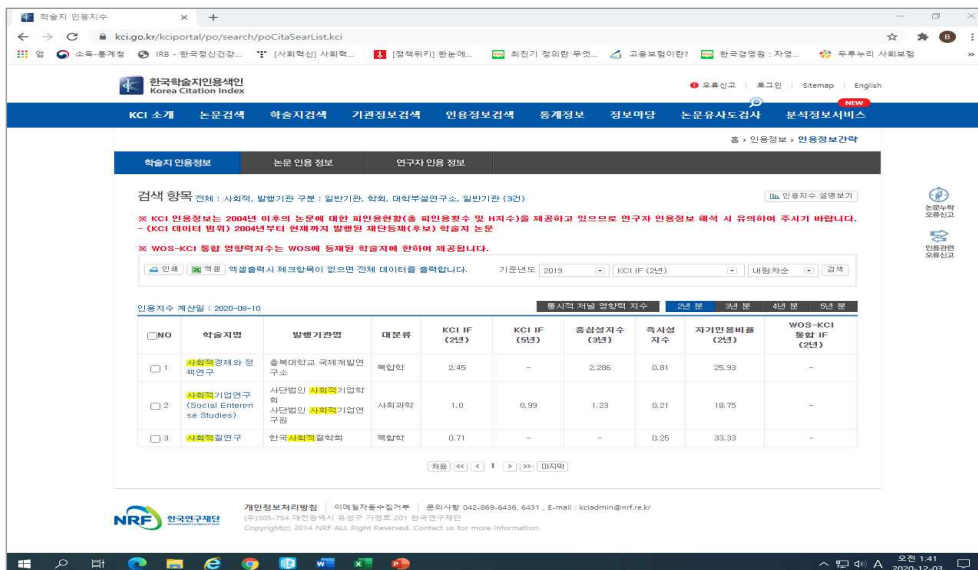
제2부 연구윤리강화 워크숍

## 2. 한국연구재단 KCI 논문유사도 검사 활용법 안내 (2)



한국인문사회질학회 2023년 상반기 학술대회(2023.06.09)  
사회적 가치 증진과 ESG  
제2부 연구윤리강화 워크숍

# 3. 한국연구재단 KCI 인용정보검색 및 <KCI 인용지수> 안내 (1)



한국인문사회질학회 2023년 상반기 학술대회(2023.06.09)  
 사회적 가치 증진과 ESG  
 제2부 연구윤리강화 워크숍

# 3. 한국연구재단 KCI 인용정보검색 및 <KCI 인용지수> 안내 (2)

The screenshot shows the KCI portal interface. At the top, there are navigation tabs for 'KCI 소개', '논문검색', '학술서명', '기관정보검색', '인용정보검색', '통계정보', '정보마당', '논문원서도입서', and '분석정보서비스'. The main search bar contains 'KCI 통합검색' and a search button. Below the search bar, there are filters for '인용보고서' and '학술지 사회학질학연구' with 36 items. The dashboard displays several metrics: '지자별 논문 수' (a pie chart), 'H-index' (2), '총 인용 횟수' (15), '평균 인용 횟수' (0.4), and '자기 인용 제외 인용 횟수' (9). There are also two line graphs: '연도별 논문 수' (2015-2020) and '연도별 인용 수' (2017-2020). At the bottom, there is a list of '논문 목록' with three entries, each including a title, author, journal, and citation count.

## KCI 인용지수 설명

**01.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

특정기간동안 한 학술지에 수록된 하나의 논문이 다른 논문에 인용된 평균 횟수로 동일 분야 저널의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 평가하는 방법을 제공

$$\text{영향력 지수 (IF)} = \frac{\text{학술지의 논문이 인용된 총 횟수}}{\text{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의 수}}$$

ex) Journal "A"의 IF구하기

2015, 2016년에 출판된 "A"의 논문들이 2017년에 출판된 논문들에서 인용된 횟수	2015년 출판된 논문 중 2017년에 인용된 수 = 100 2016년 출판된 논문 중 2017년에 인용된 수 = 110
2015, 2016년에 출판된 "A"의 논문 수	2015년 출판된 논문 수 = 90 2016년 출판된 논문 수 = 95
계산	$\frac{100+110}{90+95} = \frac{210}{185} = 1.135$

**02. KCI +WoS 통합 영향력 지수(KCI+WoS Impact Factor)**

특정기간동안 한 학술지에 수록된 하나의 논문이 국내 KCI와 국외 WoS(Web of Science) 논문에서 인용된 평균 횟수로서, 국내외적 인용도를 통합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제공 (MOS **동재학술지에 한하여 제공**)

$$\text{KCI+WoS 영향력 지수 (IF)} = \frac{(\text{학술지의 논문이 KCI에서 인용된 총 횟수} + \text{WoS에서 인용된 총 횟수}) - (\text{KCI와 WoS 에서 중복하여 인용된 횟수})}{\text{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의 수}}$$

ex) Journal "A"의 KCI+WoS IF구하기

2015, 2016년에 출판된 "A"의 논문들이 2017년에 출판된 KCI 와 WoS 논문들에서 인용된 횟수	2015년, 2016년 출판된 논문 중 2017년에 KCI 에서 인용된 수 = 90 2015년, 2016년 출판된 논문 중 2017년에 WoS 에서 인용된 수 = 30 KCI 논문이면서 동시에 WoS 논문에 중복 인용된 수 = 15
2015, 2016년에 출판된 "A"의 논문 수	2015년 출판된 논문 수 = 90 2016년 출판된 논문 수 = 95
계산	$\frac{90+30-15}{90+95} = \frac{105}{185} = 0.567$



## 한국인문사회질학회 2023 상반기 학술대회

*The 2023 First Half Conference of the Korean Association on Humanities & Social Quality*

---

2023년 6월 8일 인쇄

2023년 6월 9일 발행

편집인: 박보영

(16487)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90

국제사이버대학교 영상문화학부 송시형교수실 내

**한국인문사회질학회 운영위원회**

전화: 031-229-6254

이메일: kasq2017@naver.com

홈페이지: <http://www.socialquality.kr>

---